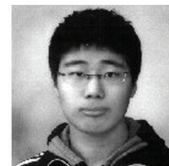


독립 정신

통권84 2015년 11,12월호



권두언 백범(白凡)의 통곡이 들리는가? _이두엽

특집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의 사유화이자 온 국민의 국정화이다 _박한용

친일파와 후손들(6) 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친일파와 그 후손들 _최광웅

역사인물특집 소년 노상직의 생애와 독립운동 _김광재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신을 헌법으로 살리신 이종찬 선생님과 함께 _배석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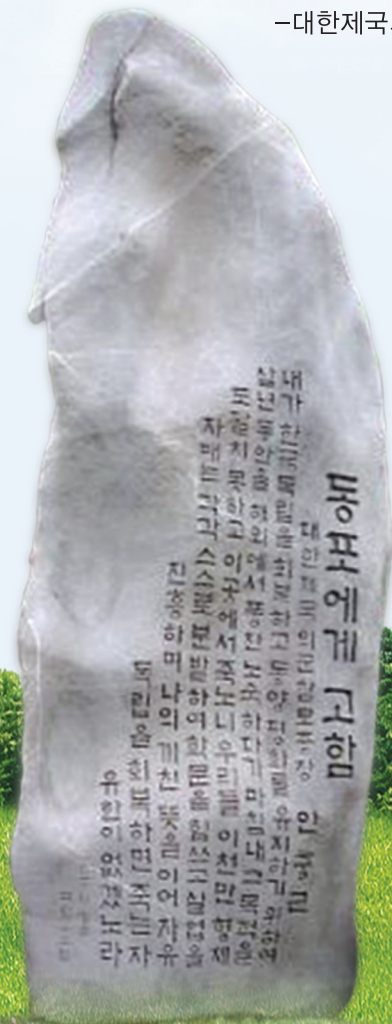
기고1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 _김삼웅

기고2 파스키에 프랑스 대사의 숨겨진 한불외교 미담 _주섭일

안중근(安重根 : 1879 ~ 1910)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년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유한이 없겠노라.

-대한제국의군참모총장 안중근-



안중근(安重根)



공판정의 안중근 의사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한학과 무술을 배웠다. 1895년 아버지를 따라 가톨릭에 입교하여 신학문을 접하였다. 1905년 진남포에 돈의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다가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의병 운동에 참가했다. 1908년 전제덕 휘하 대한의군 참모총장 겸 특과독립대장, 그리고 아령(俄領)지구 사령관의 자격으로 백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1909년 동지 11명과 죽음으로써 구국 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안중근 의사 가족 사진(모친 조마리아 여사)

맹세하였다. 그 해 10월 26일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러시아 정상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역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잠입하여 역전에서 러시아 군대의 군례를 받는 이토를 사살하고, 하얼빈 총영사 등에게 중상을 입힌 후 현장에서 붙잡혔다. 여순(旅順)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10년 3월 26일 형장에서 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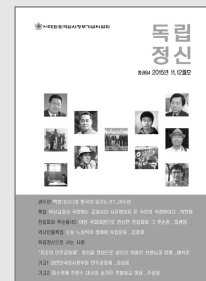
(왼쪽부터) 안중근 의사, 우덕순, 유동하. 의거 사흘 전인 1909년 10월 23일에 중국인 사진관에 들러 이 사진을 찍었다.

독립정신

2015 11*12

통권 84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31

- 04** 권두언_ 백범(白凡)의 통곡이 들리는가?
| 이두엽

- 08** 특집_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의 사유화이자 온 국민의 국정화이다
| 박한용



32

- 17** 친일파와 그 후손들(6)_ 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친일파와 그 후손들
| 최광웅

- 22** 역사인물특집_ 소nul 노상직의 생애와 독립운동
| 김광재



41

- 30**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신을 헌법으로 살리신 이종찬 선생님과 함께...
| 배석준

- 42** 기고_1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
| 김삼웅

- 51** 기고_2 파스키에 프랑스 대사의 숨겨진 한불외교 미담
| 주섭일

- 55**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 의친왕 망명을 이끈 대동단의 "박정선"
| 이윤옥

- 57** 영화읽기_ 영화 <소수의견>, 멈춰진 현실의 시간
| 이두희

- 62** 임정서가_ 숲은 고요하지 않다
펜으로 길을 찾다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역사의 절망을 넘어
| 편집부

- 73** 독립정신 이모저모



58



73



75

백범(白凡)의 통곡이 들리는가?



이두엽
전주대 객원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1919년 4월 13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法統)을 전면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건국과는 큰 상관없는 가치 없는 일로 능멸하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1945년의 해방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해 거저 주어진 것이고, 그 후 이승만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후대들에게 올바른(?) 국사교과서를 통해 가르치자는 주장이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끈질긴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따리 둘러메고 여기저기 쫓겨 다닌 낭인(浪人)집단 정도로 매도하는, 참으로 ‘패륜아적인’ 역사관을 가진 집단들이다.

4.19 민주혁명으로 국외 추방당한 이승만 조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존중하고 1948년 정부 수립을 ‘민국 30년’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던가?

한 마디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작태들이다.

민족사의 패륜아들은 어떤 자들인가.

삭풍이 몰아치는 북만주에서, 일제 고문 경찰의 지옥 같은 지하 고문실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을 ‘문명사의 흐름에서 뒤쳐져 식민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집단’ (극우 이데올로그들의 논리임)으로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찌 민족사의 패륜아들이 아니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일본의 군사 책임자가, 일본이 북한 땅에 군사 작전을 전개할 때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고 망언을 해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 시절이 왔다. 일본이 실제로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라도, 그런 징후가 예견되면 사전에 타격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은 비상시에 대비해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거점 시설에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을 일본이 타격할 때 북의 미사일은 우리 원전을 향해 날아올 것이다.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어느 순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한민족 절멸(絶滅)의 가공(可慄)할 사태가 불시에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다가오는 전쟁의 위기를 예감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했기에 38선을 넘었다. 결국 백범은 이승만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고, 한민족은 400만이 넘는 목숨이 희생되었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고도 정밀 무기와 핵미사일의 시대이다.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군산복합체의 강력한 힘이 세계정세를 좌우하고 있다. 아베 노믹스가 한계에 도달할 시점에서 아베와 미쓰비시는 동아시아에서 국지전의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백범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내려다보시며

통곡을 하고 계신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철도와 도로가 놓이고, 근대화의 단초가 마련되어 경제적으로 그만큼 살기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패륜아들이다.

일제 식민지에 이어 박정희의 국가 독점자본주의 전략이 성공하여 오늘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핵심논리이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논리다.

주지하다시피,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골간은, 4.19 이후 장면 내각에 의해 세워졌고, 5.16 군사정권은 그 마스터플랜의 토대 위에서 집행되었다. 군사 독재적 수단에 의해 자원의 강제 동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시대는 전 세계에 걸쳐 비약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경제 발전의 주역은 독재자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이 땅의 민중들이다. 이 땅의 민중은 소수 독점재벌을 위한 독재 체제가 아니더라도,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내기에 충분한 능력과 의지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경제 발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성취해낸 것이다.

반면에 개발 독재시대의 부정적 유산인 부의 편중과 자원의 왜곡 배분이 오늘의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한일 강제 합방이 있었던 1910년 이후 식민지 시대의 도로와 철도는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1911년 777달러였던 조선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945년 616달러를 기록했다. (충남대 허수열 교수)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들이 독점한 자료를 짜깁기하는 ‘조작된’ 논리로 규탄되어야 한다. 그들은 왜 패륜아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세력들의 뒤에는 일본의 극우 집단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 일본 총독이 한 마디 던지고 갔듯이, 그들은 ‘다시’ 돌아오려 하는가.

백범의 <나의 소원>을 다시 읽어본다.
백범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 복지국가’를 꿈꾸었다.
국가의 부(富)가 특정 재벌 집단에 집중되고,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서 이민을 꿈꾸는 지금의 이 나라를 내려다보며, 백범은 통곡하고 계신다.

백범은 문화국가를 꿈꾸었다.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려다보며 백범은 통곡하고 계신다.

대통령이 ‘올바른(?) 교과서’를 강박하며 국민들을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극우단체들이 방청석에서 박수로 환호하고 있었다.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가 그들 속에 숨어 있었다.

민족의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들리는가! 오늘.

백범의 통곡 소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의 사유화이자 온 국민의 국정화이다



박 한 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애초부터 그 동기가 불순하다. 애초 김인정이냐 국정화냐 하는 교과제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인식을 어떻게 공교육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관철할 것인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교육적 입장과는 무관한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의 본질이다. 현 집권 여당이 2008년부터 본격 밀어붙인 건국절 제정 추진과 이른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의 출간, 그리고 뒤이은 김인정교과서에 대한 공격(특히 금성출판사가 펴낸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마녀사냥)과 교과서 집필기준안의 변경, 그리고 2013년 8월 뉴라이트 교과서의 복사판인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김정본의 승인 과정을 보면 잘 드러난다.

건국절 : 친일파를 전국공로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

2008년 한나라당 시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국절을 주장했다. 이미 2003년부터 주장한 바이지만, 모처럼 정권을 잡자마자 곧장 내세운 것이 건국절 제정 움직임이다. 건국절의 핵심 주장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절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들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연합국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렸다. 대신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부른다)까지가 우리 스스로 나라를 건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삼 년간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독립운동기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을 건국운동기로 구분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새 정부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좌우 투쟁(즉 반공투쟁)을 통해서 새로 건국된 나라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줄지에 대한민국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되고 만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더라도 해방 후 반공투쟁을 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가하면 건국공로자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5만원권 화폐가 만들어질 때 대표 인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백범 김구선생이 1위를 차지했으나, ‘김구선생은 독립운동에 공로가 크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요컨대 김구는 반국가사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해괴한 논리는 희한하게도 대한민국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는 신사임당이 최고 화폐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친일파들의 경우 아무리 민족반역을 했더라도 해방 후 반공투쟁을 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제1공화국)의 요인이 되면 건국공로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둔갑시키려는 음모가 건국절 제정이다. 이러한 음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본격 편찬하고 있던 2003년부터 현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대한민국건국공로자에 대한 특별예우법’을 만들어 여러 차례 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한사코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건국’ 또는 ‘대한민국 수립’을 역사용어로 밀어붙이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건국절 자체가 3.1독립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성을 내세우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역사 쿠데타이다.

역사쿠데타의 교범 출현 : 뉴라이트의 이른바 대안교과서의 등장

2008년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던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발간하면서 역사에 대한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이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이후 새누리당의 도착된 역사관이나 새누리당이 ‘국민의 교과서’라 부르면서 보급에 힘썼던 교학사판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본의 근본 구조와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정 교과서 또한 이에 근거해서 만들어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 교과서의 주장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병직, 이영훈 등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된 뉴라이트 필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0세기 ‘모범국가’이자 ‘성공국가’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공은 박정희 집권기의 고도성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정희 집권기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근대화의 인적, 물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수탈과 억압의 시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 문명이 일본을 통해 학습되고 축적되던 시기(근대화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친일파들은 일찍이 조선총독부와 같은 국가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근대 국가 운영의 경험을 익힐 수 있었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대한민국은 효율적인 근대국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민족반역자라 지칭되던 친일파들이 독립과 건국을 대비해 근대화의 역량을 미리 축적한 민족지사이자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간 주역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승만을 분단과 독재의 주범이 아니라 분단의 필연성을 예견하고 한반도의 절반이나마 붉은 마수에서 건져내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한 국부’로 다시 모셔야 한다고 떠들었다. 이승만을 6.25 당시 미국 등 16개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물리친 구국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사흘 만에 수도를 빼앗기고, 한강 철교를 폭파해 서울 시민을 내던지고, 학도의용군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피를 뿌릴 때 정작 자신은 부산에서 계엄령을 발동하고 헌병과 깡패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을 바꾸어 재집권에 골몰한 자를 줄지에 대한민국을 ‘붉은 마수에서 구해 낸 은인’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 뿐 아니다. 박정희가 일으킨 5.16은 형식상은 군사쿠데타이지만 내용은 ‘제3세계 근대화혁명’의 한 유형이며, 안보와 조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강압적인 정치(유신독재)가 불가피했다고 독재를 정당화하면서, 박정희를 독재자 대신 ‘근대화 혁명가’로 부를 것을 적극 제안했다. 그리고 박정희 집권기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산층이 생겨났고, 이 중산층(화이트칼라층)의 정치

적 욕구 불만이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독재자와 재벌이 민주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기괴한 논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달성론의 배후 논리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당시 박정희 등 친일파 독재 논란에 빠진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에게 역사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복음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논리에 따라 마침내 역사 뒤집기를 본격화했다.

교과서 마녀사냥과 새누리당표 교학사 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조선총독부 교과서를 능가하는 일제의 식민지배 미화와 친일파와 독재자 찬양으로 가득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너무나 황당한 주장에다 내용도 반헌법적이었기에, 여론의 못매를 맞고 사실상 퇴장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역사적 쾌거’라며 축하발언까지 아끼지 않았다. 뒤이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한나라당과 그 외곽의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와 수구 언론들은 일제히 ‘건국절’ 제정 운동을 벌이면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일선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채택한 죄로 금성교과서는 줄지에 좌경교과서로 몰리면서 불벼락을 맞았다.

이뿐 아니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동상을 세종로에 건립하자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독재자 이승만이나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 것을 임무로 한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특히 교과부는 2011년 일선 학교에 4·19를 ‘데모’로 폄훼하고 역대 독재정권을 미화한 현대사 영상물 <기적의 역사>를 배포했다. 이어 학계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제멋대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까지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한편 대안교과서를 쓴 대표 필자인 이영훈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국사학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교과서 검정제도와 집필제도를 고쳐 경제학자 등이 집필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이것이 국정교과서 강행 단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금성교과서 등을 제물삼아 2011년 고등학교 국사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새롭게 강요했다. 이때 역사학계와는 전혀 논의가 없이 뉴라이트 학자들이 변신해서 급조한 한국현대사학회(실제 한국사 연구자는 1,2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서양사,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를 파트너로 삼고 상공회의소나 국방부 등에 현행 검정교과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받으면서 집필기준안을 새로 만들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꾼 박근혜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8월 30일

새로운 집필 기준안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판 검정 교과서가 다른 7종 교과서와 함께 통과되었다. 무려 2260군데 이상 틀린, 교과서 한 쪽 당 5, 6개가 틀린 엉터리 책자가 버젓이 검정 통과된 것이다.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수준의 책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라면 단 하나, 현 정권의 입맛과 이익을 대변한 것 때문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 구조나 서술 내용이 철저하게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한층 저열한 수준에서 베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야 박근혜 정부가 왜 이 교과서를 국민의 교과서로 보급하려고 했겠는가!

박근혜정부가 정상이라 내세우는 교학사 교과서는 한마디로 역사의 정신분열증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일제의 강요 덕분에 한국인은 시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일본인은 결코 한국인의 땅을 빼앗지 않고 따로 시가지를 건설하였다, 5.16은 경찰 해고로 치안이 혼란에 빠져서 일어났다는 등 기괴한 서술이 부지기수였다. 또 광주민주항쟁의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는 위헌과 탄핵과 안보 약화 등만을 거론하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선진화 시킨 훌륭한 대통령으로 묘사하는 등 명백하게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당의 홍보지였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내용이기에 교학사 검정통과본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봇물 일듯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9월초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는 교학사 검정본 대표 필자(이명희, 권희영)를 불러 역사강좌의 강사로 초빙하면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박근혜정권과 ‘조중동문 수구언론’은 일제히 나머지 7종 교과서 전부를 좌경교과서로 매도하면서 공격을 개시했다. 쓰레기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교육부에 그 책임을 묻는 대신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와 보급에 앞장선 것이다. 그러나 전국 2300여 고교 가운데 단 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교학사 검정본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이 이사로 있는 학교에서 채택했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불량교과서가 검정제도에서 퇴출되자 뒤이어 나온 것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다.

친일 세력의 후계들과 집권 여당의 정권 장악을 위한 역사쿠데타가 국정화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 2일)을 보면, 2014년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교용 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이 드러났다. 교학사 교과서가 단 한곳밖에 채택되지 못하자 바로 국

정화를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교육적 검토가 있었는가. 한 마디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무리하게 마구 써재긴 엉터리 교과서가 검정제도에서 외면당하자 공권력으로 관철하려고 한 것이 국정화이다. 그리고 국정화의 실제 추진자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실제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음에도 박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박정희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독재자라고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한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국정화이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일기를 국정교과서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의 사유화이고 정당교과서의 국정화이다. 전혀 교육과 관계없다.

현 정권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근거 또는 필요성으로써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또한 터무니 없는 사기이자 모략이다.

첫 번째로 이들은 현 검정 교과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현 검정제에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있는데(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의 수준(질)이 떨어져 국정제를 통해 질 높은 교과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명백한 거짓말이다. 검정교과서를 국정 교과서와 비교하면 내용이나 체제, 가독성 등에서 국정에 훨씬 앞서며, 검정에서 통과하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을 올려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2,200여 개나 틀린 교학사판 교과서를 검정통과 시키고 이를 비판하자 다른 7종 교과서를 느닷없이 공격했다. 검정제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검정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외면당하니 검정제 자체를 파괴시킨 것이다. 검정제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현 정부이다.

둘째, 현재 8종 교과서 가운데 99.9퍼센트가 좌편향되어 있어 국정화를 통해 균형 있는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¹⁾ 현 정부가 좌편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내용이 ‘6.25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미래엔교과서), 주체사상을 직접 인용해 무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금성교과서, 천재교과서)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국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학생들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 현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보급에 힘썼던 교학사판 검정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채택율이 99.9%인 것을 지칭한다. 실제 전국의 2300개 고교 가운데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로 99.9퍼센트 학생이 좌편향된 역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근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자 사기이다. 실제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북한의 남침을 본문에 서술하고 나아가 사전에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양해까지 얻었음을 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6.25의 책임이 남에도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다’는 미래엔 교과서의 해당 내용(자료로 제시된 일기)인 자료 읽기에 나온 “(6.25 발발의) 동기로 친다면 남이나 북이나 다름없지만”이라는 내용도 정부 해석은 엉터리이자 기만이다. 이 일기는 김성철이라는 역사학자가 6.25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으면서 쓴 것인데, 인용된 전체 내용을 보면 ‘전쟁 전 남측(이승만)은 북 진통일을, 북(김일성)은 적화통일을 외치면 무력통일을 주장했고(이건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남침을 기획하고 선전하고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니 말할 필요가 없고, 일주일 만에 평양을 석권할 수 있다고 한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수도마저 빼앗긴 것을 개탄’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어디 6.25 남침의 책임을 남한에 묻는 게 있는가. 더구나 이 자료마저도 교육부가 검정 통과 이후 문제를 제기해 현재 교과서에는 아예 다른 자료로 대체되어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

또 금성교과서나 미래엔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직접 인용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과서들은 “북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직접 인용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락에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유일사상으로 변질되어 반대파를 제거하고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왜 이런 내용이 용공 좌경으로 몰려야 하며, 새누리당이 전국의 당사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무시무시한 헐박 플래카드를 걸 만한 내용인지 되묻고 싶다. 더구나 2015년 교육부의 학습 요목에 주체사상, 세습체제 등을 집필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이를 제시하고 비판한 것이니, 이 내용이 문제라면 교육부를 주체사상 보급의 주모자로 보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 교과서를 역사학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새 국정교과서는 역사학자 외에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근 학문 전공자들이 참여해 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하게는 ‘한국 역사학자들이 90퍼센트 이상 좌편향되었다’²⁾, “전체적으로 현재 교과서는 반대한국, 친북한적이다. 지금의 좌편향 역사교육은 학생들 뇌에

2) 김도연 이명박정부시절 교육부 장관, 황우여 현 교육부 장관, 황교안 총리 등. 극단적 예: “지금 대한민국이 좌편향 역사병에 걸렸다. 북한을 찬미하고 남한의 정통성·정당성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민주화 성과를 부정하는 반대한국 역사병에 걸려 있다”-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다 독극물을 심어주는 것”(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또는 한국사 교수들은 “대학 시절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 공부를 하지 않아 실력이 없다”(황우여 장관) 등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의 막말을 퍼붓고 있다.³⁾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면 현재 한국의 역사학자(특히 한국사 연구자)들은 90퍼센트 이상이 좌경이며, 그들에 의해 교학사판을 제외한 7종의 교과서의 중학교 검정교과서 모두가 좌경화되어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깎아내리며, 북한을 찬양하는 독극물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어디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역사학계가 진보 중도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이 국정화를 반대하니까 아예 역사학계 전체를 좌경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좌경몰이라는 공포의 공안정치로 역사학계 전체를 매장시키면서까지 국정화를 주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공안화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파괴와 교육의 정치도구화

그런데 국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유신독재 시기 박정희 대통령은 투철한 국가관과 국적 있는 교육을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사를 비롯해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유신독재를 찬양 미화하는 내용을 배우고 생각마저 정권에 입맛에 맞게 통제당했고, 학교교육은 붕괴되었다. 유신 독재 시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일하게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의 경우 이미 작년 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그 의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일제 식민정치시대와 한국 군사독재 부분에 대해 우려...한국 교육부로 하여금 당시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강요에 따랐다고 기술한 교과서를 승인하도록 압박했다(오늘날 대다수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은 일본 식민정부와 협조했던 집안출신이다)....아베총리와 박 대통령은 2차대전과 친일 이슈에 민감할만한 집안 내력이 있다....박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식민시절 일본제국군대의 장교였으며 1962-1979년까지 한국의 군사독재자였다. 두 나라는 교과서를 수정해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려는

3) 이외 현대사는 다양한 분과 학문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만으로는 집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뉴욕 타임즈는 한국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과거 독재 시절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해 사실상 국정교과서는 독재시절로의 회귀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괴스트르 교수는 현재의 국정화 강행에 대해, “자기 스스로의 역사조차 제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한국정부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반성과 화해를 논할 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개탄하면서, “이번 국정화는 일본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을 매우 공허하게 만들 것”이며, “지금 목격하는 상황은... 역사교육을 아무 의심없이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젊은이들을 찍어내는 것”으로 보는 쪽과 “독립운동이 정신을 계승해 책임 있고 주체적인 비판적 시민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쪽의 대결이라는, “역사전쟁이 수면에 떠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국정화를 권력에 복종적인 학생 양성 수단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퇴행적인 조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정화는 역사쿠데타이자 전 국민의 국정화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국정교과서를 기초로 수능시험을 통해 자신들이 주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철할 것이다. EBS 장악을 통해 국정 교과서의 참고서나 문제집을 통해 교과서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공무원시험, 대기업의 입사 시험, 국가평판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통해 학생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국정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기초로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자로 만들어 정권을 영속화하려는 추악한 정치놀음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공교육의 현장에서 국정화는 사상과 사고의 획일화를 강요하고 무엇보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과서의 국정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입맛에 따라 고쳐질 수밖에 없기에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근본을 파괴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국정화 제도가 이미 문제인데다가, 편협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마저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들에게서 어떻게 공정한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보장받겠는가? 현 정권이 어떻게까지 집요하게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역사적 정통성을 결여한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젊은 세대 곧 미래 세대의 유권자를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한 음모가 배후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친일파와 그 후손들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2015년 가을은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10년 만의 친일 사관에 의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록 정권의 힘을 앞세워 난데없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일제 강점기를 보더라도 결국 역사는 정의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광복 직후 반민특위 실패와 2005년 참여정부가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작업이 오늘날 반복되는 친일파 후손들의 창궐을 용인하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정부 10년, 아니 4·19 혁명 직후 2공화국을 포함하면 세 번의 집권 경험이 있는 현재의 야당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야당 안에도 수많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지도적 위치를 거쳐 갔고 아직도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친일 논란에 휩싸인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광복 직후 대한해운공사 사장, 주일 공사 등으로 활동해온 김용주는 1958년 4대 총선 당시 고향인 경남 함양군에 우익계열의 국민회 간판으로 나섰다. 그러나 약관 33세의 무소속 박상길에게 182표 차로 석패하고 만다.(김용주는 자서전에서 박상길을 자유당 공천자로 표현하고 자신은 무소속으로 기재했다) 그는 4·19 혁명 직후 양원제 국회에서 참의원에 출마, 원하던 금배지를 거머쥔다. 4명이 정원인 경남 2부에 그를 공천한 건 집권이 확실히 되던 민주당이었다. 안호상(무소속, 초대 문교장관), 오위영(민주당, 3선)에 이어 3위로 당선됐으나 민주당 원내총무로 선출되는 수완까지 발휘했다.

〈풍설시대 80년〉이라는 회고록을 보면 김용주는 항일 애국자로 등장한다. 20대 초반에 3·1운동 정신을 담은 삼일상회를 개업해 당당하게 극일의 길을 걸었다고 소개한다. 1945년 일제의 패색이 짙어갈 무렵, 총독부가 미군의 조선 상륙에 대비하여 조선 내 미군 협조대상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포항지역 총살 대상 1호로 김용주를 지목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한 자료에 따르면, 김용주는 일제강점기 ‘애국기 헌납’, ‘징병 독려’ 광고 등으로 명백한 친일행위를 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주는 일제 수탈기구인 경상북도 도회의원과 국민총력경상북도수산연맹이사,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 등을 지내며 친일의 선봉에 섰다.

연구소는 1944년 7월 9일자 일본 아사히신문 4면 하단에 실린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광고는 김용주의 기명 광고라고 밝히면서 “1945년 김용주 전 회장이 활동한 경북 영일군에서만 100만원 상당이 모금돼 패전 직전까지 경북도민이 총 109대의 비행기를 헌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김용주가 징병제를 찬양하고 전쟁 동원을 선동한 자료를 공개했다. “북지방면에서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악전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전보를 발송하자” 제 15회 경북도회 회의 중 김용주의 발언을 실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1942년 3월 13일자 기사이다.

김용주의 3남은 바로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이다. 그 역시 1980년대 YS를 따라 야당 정치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협과 통일민주당 기획조정실 차장 등을 거치며 김영삼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YS의 대통령 당선으로 청와대 참모로 변신했다.

광복절을 나흘 앞둔 지난 8월 11일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사법적 연좌제는 없어졌다 해도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국민 가슴 속 분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실을 밝히며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자손인 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있다”며 “매년 3·1절, 광복 70주년인 이번 광복절이 다가올 때는 솔직히 부끄럽고 어디론가 숨고 싶지만, 그럴수록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고 밝혔다.

홍의원이 뒤늦게나마 공개 사과해야 할 정도로 그의 조부 홍종철은 1급 친일파였다. 창씨개명 洪海鍾轍의 친일 행각은 1913년 23세 때부터 시작된다. 물려받은 거액의 재산을 바탕으로 기부 경쟁에 나서 1913년 조선총독부로부터 목배 1개를 받기 시작해 1915년 다이쇼 천황과 1928년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는다.

그는 총독부 통치기구인 전라북도 도회의원에 1933년과 1937년에 잇달아 임명되었다. 특히 1930년 조선인 최고 직위인 총독부 자문기구 중추원 참의에까지 올라 매년 6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만 3년 동안 재직하였다. 그의 부일 행각이 두드러진 건 태평양전쟁 이후부터이다. 1941년 전시 최대의 민간 전쟁협력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이 결성될 때 전라북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44년부터는 고창군 부안면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리한 공출과 선산의 목재를 군용으로 벌채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는 8·15 후 패망한 일본군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끝까지 친일의 길을 걸었다.

이 사이 그는 고창요업 사장, 흥해제염 사장, 고창연해어업조합 사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였다. 또한 고창고보 설립에 참여해 이사를 지냈고 동아일보 고창지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광복 이후인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다. 친일파 708인 명단의 중추원 부문,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중추원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다.

그의 손자는 홍영표 의원은 조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2002년 개혁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2009년 인천 부평(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2년 재선되었다. 2012년 총선 당시 조부의 친일 행각으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다.

‘불놀이’를 지어 한국근대시 형성에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긴 주요한 역시 4, 5대 민주당 의원을 역임했다. 창씨개명이 松村紘一인 그는 김성수, 윤치영처럼 선헌일(先抗日) 후친일(後親日)의 길을 걸었다. 주요한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기자로 활동한다. 1925년 귀국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 및 논설 위원으로 일하였고 신간회와 홍사단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는 박홍식의 화신 산업 취체역 등 기업 활동을 하면서 시작 활동도 뜸해지더니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을 전후해 변절의 길로 나선다. 이광수, 현제명, 홍난파 등과 함께 체포되어 전향하였고, 이후 총독부의 내선일체 체제에 순응하였다. 그는 1940년대 기간 조선문인보국회·조선임전보국단·조선언론보국회 등 수많은 친일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친일에 앞장섰다.

그는 8·15 이후에는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1954년 호헌동지회에 참여한 뒤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1958년 4대 총선 때 서울 중구에서 윤치영을 누르고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4·19 직후 재선되었다. 민주당 집권 후에는 상공부장관과 부흥부장관에 잇달아 기용됐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문학 부문에 포함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남긴 소설가 주요섭과 극작가 겸 연극연출가 주영섭은 주요한의 친동생들이다. 주영섭 역시 2008년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연극·영화 부문에 포함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으니 형제 친일파들이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금년은 제1야당에게는 창당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법통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새정치연합은 지난 9월 18일을 창당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의 법통은 1955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사건을 계기로 민주국민당의 보수파와 자유당 탈당파, 그리고 홍사단 등의 범야권 세력이 모여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9월 18일 창당한 것이 계기이다. 이듬해 대선 때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장면을 내세워 3대 정·부통령 선거에 나섰으나 신익희는 선거 직전 사망했고 장면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1949년 신익희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참여한 이가 유감스럽게도 친일 인사이다.

유광렬 신익희 의장 비서실장은 일제 강점기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1살 때인 1919년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입사하여 언론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듬해 〈동아일보〉 창간사원이 되었고 사회부장까지 승진했다. 1924년에는 〈조선일보〉로 옮겨 사회부장을 지냈고, 이후 매일신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 총독부 통치기구인 조선임전보국단과 조선언론보국회에 가담하였고, 조선일보가 발행한 친일잡지인 〈조광〉의 주요 필진이기도 했다. 중일전쟁 때 중국전선에 종군하고 기록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조광에 기고한 〈대동아전쟁 3년〉 등 다수의 친일 논설이 남아있다.

그는 고향인 경기도 고양군에서 무소속으로 2, 3대 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했고 1956년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보궐선거에 나섰으나 역시 낙선하였다. 4·19 혁명 이후 무소속으로 민의원에 도전하여 당선되었으며 민주당에 복당, 구파동지회에 가담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언론계로 복귀한 그는 〈자유신문〉 주필과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을 지내며 평생을 보수주의 계열에서 언론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는 일제 강점기 말기에 친일 행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에 걸쳐 꾸준히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문화훈장 대한민국장까지 수여받았다.

2008년 공개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언론·출판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슬하에 아들이 없어서 나이 50세에 양자 하나를 두었다.

위와 같이 몇 사람만 살펴보았지만 민주당으로 출발한 제1야당은 결코 자랑스러워할 60년 역사가 아니다. 친일 청산, 제1야당부터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소nul 노상직의 생애와 독립운동



김 광 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일제강점기 밀양이 배출한 독립운동가는 결코 적지 않다. 김원봉, 윤세주 같은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이 밀양 출신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한편 활동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小訥 盧相稷(1855~1931)이다.

물론 지금까지 소nul에 대해서는 한문학계에서 유림이자 교육자, 한문학자로서 조명되었으며 관련 연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그에 대한 연구는 그가 벌였던 간행사업 등 서지학 영역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대표적인 유림으로서 1919년 3.1운동 이후 파리장서에 서명하였으며 당시 광복회에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 자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자료가 묻혀있는 상태에서 그 진상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그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소nul 노상직은 1855년 11월 21일 경남 김해 금곡에서 침지중추부사를 지낸 克齋 盧泌淵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光州이다. 자는 致八이고 호는 소nul이다. 위로는 6년 위의 형 大訥 盧相益(1849~1941)이 있었다. 대nul은 소nul에게는 평생 학문의 동반자이자 반일운동의 동지였다. 소nul은 형 대nul과 함께 12세부터 성재 허전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소nul은 1884년 4월 부친상을 당하고, 1886년 모친상과 스승 허전의 상을 연이어 당했다. 이때부터 소nul은 과거공부를 접고 독서와 강학에 전념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을 거치면서 외세의 영향으로 정국이 극도로 어지러워지자, 두 형제는 부친을 모시고 향리를 떠나 창녕으로 옮겨 서당을 열고 강학활동을 시작하였다. 1895년에는 밀양 금곡에 錦山書堂, 다음 해에는 단장면 노곡으로 옮겨 紫巖書堂을 열어 본격적 도제양성에 들어갔다. 강학에는 백형 대nul을 모신 가운데 주로 경전 중심의 유학교육에 치중하면서도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걱정과 선비들의 올바른 처신을 일깨우는데 주력했다. 특히 1910년 경술국치까지 계속된 자암서당의 초기 강학에서 배출된 문도 가운데 후일 유림들에 의한 파리만리장서에 서명한 분이 타 지역들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소nul 형제는 국권회복의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것은 중국 망명의 형태로 나타났다. 1911년 신해년 말에 소nul 형제는 만주 안동으로 망명하였다. 소nul은 1910년 경술국치 전후 유림 및 신민회의 만주 망명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11년에 접어들면서 안동을 비롯한 각지 유림이 만주로 망명하여 반일 활동을 위한 근거지를 건설하였다. 공화주의를 부르짖던 신민회 계열도 국치를 전후하여 국외 독립군기지를 창건하기로 하였다. 1911년 1월 이동녕, 이회영 등이 도망하였으며, 그들은 서간도에서 독립군기지를 세우고 일본군과의 일전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소nul 형제가 만주로 망명을 떠난 데는 국치 후의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일제의 핍박도 소nul 형제의 망명을 서두르게 했다. 백형 대nul은 홍문관 시강 재임 시절 오래도록 경연이 열리지 않자 상소를 올리고 낙향할 정도로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대nul은 만주 망명을 떠나기 전에 일제로부터 수차례 핍박을 받았다. 그 중에 큰 사건으로는 1906년 2월 이토 히로부미가 부산에 올 때 영남루에 구금된 일, 1910년 은사금 거부로 일본 헌병대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일, 다시 영남루에 압송되었다가 풀려난 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제의 은사금 거부 사건은 소nul 형제에게 큰 곤욕을 치르게 하였다. 일제는 한국 강점 이후 각 지방의 대표적인 유지 및 유림들을 회유하기 위해 이른바 은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의식 있는 많은 이들은 은사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대눌에게도 은사금이 지급되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였다. 은사금 거절로 말미암아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소눌은 옥 밖에서 여러 날 형 대눌을 모셨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일제의 탄압은 소눌 형제로 하여금 만주 망명을 서두르게 하였다.

마침내 소눌 형제는 일제의 압박으로 부자유스러운 국내를 벗어나 일제의 직접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만주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건설하여 반일운동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소눌 형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만주로의 망명을 결행하였다. 대눌은 1911년 말 조상의 묘에 하직인사를 하고 간단한 행장을 꾸려 밀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을 하였다. 한 달 뒤, 대눌은 다시는 조국으로 귀환하지 않을 결심을 한 듯, 동생인 소눌에게 집안의 사판과 제구, 도서 등을 남기지 않고 다 챙겨 가솔들과 함께 만주로 올 것을 지시한다. 이로보아 조상의 묘소 관리 등 집안일에 대해 소눌과 대눌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눌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친처럼 따르고 모시던 형과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일이 없었다. 그런 형이 병든 몸으로 떠났기 때문에 형을 모시기 위해서 망명을 떠나는 것이지, 옛사람이 은둔하던 뜻을 모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형과 떨어져 지낸 일이 없다는 소눌의 말을 살펴보면, 대눌이 망명을 떠난 뜻에 부합하기 위해 형을 따라 떠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눌은 병든 형을 간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옛사람의 은둔하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망명을 떠났던 것이다.

소눌 형제가 압록강 근교를 망명지로 택한 것은 국내와의 원활한 연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동에는 유림 맹보순의 성신태라는 상점이 있어 유림 세력의 만주 망명을 위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또한 소눌은 고향의 부모님 묘소를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때때로 부모님의 묘소를 성묘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간도의 압록강 근교로 망명지를 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안동에는 1910년대 후반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한 아일랜드인 조지 쇼의 이륜양행이 있었음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소눌 형제가 망명지로 선택한 안동 및 그 인근 지역은 국내와의 연락 및 왕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소눌은 1911년 12월 안동을 거쳐 안동현 接梨樹村 西溝에 정착하였다. 이곳에는 소눌보다 한 달 먼저 망명한 대눌이 정착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安孝濟, 李建昇과 같은 당대의 명유들이 앞서거나 이곳으로 와서 정착하였다. 망명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 주거지를 마련하고 경작을 하며 먹고 살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국풍토에 대한 적응일 것이다. 그 중 언어소통 문제, 풍토병 등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고국과 다른 풍속과 제도의 적응, 비적들의 습격에 이르기까지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그럼에도 이들은 망명지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상호 결속을 다졌다.

한편 일제는 소눌을 비롯한 망명지 한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핍박하였다. 이는 일제의 감시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제의 공공연한 감시 활동은 망명지 한인들을 불안케 하고 정작을 힘들게 하였다. 대눌은 1914년 안동에 출입하는 군자금모집 관련 요주의 한인 명부에 맹보순 등과 함께 이름이 올랐다. 대눌의 경우는 1922년에도 군자금모집 관련 인물로 다시 거론되었다.

소눌은 망명생활 동안 많은 유교지식인들과 교유하였다. 만주에 망명한 유림 인사들이 현지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상호 결속을 다지고 이를 통한 반일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소눌은 형 대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눌의 만주 망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눌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식용의 죽음이다. 소눌이 대눌에게 입적시킨 아들 식용이 1912년 11월 망명지에서 병사했던 것이다. 자식을 잃는 아픔에 소눌은 장기적인 국권회복운동에 종사하겠다는 당초의 뜻을 접고 압록강을 다시 건너 귀국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형제가 다함께 망명하는 바람에 고향의 집안을 보살피지 못하는 데 대해 형제 간에 일정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이다. 즉 대눌은 망명지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소눌은 환국하여 집안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한편, 백형의 망명과 항일운동을 돕는 자금을 포함한 제반의 은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소눌은 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1년여의 만주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정신적인 망명은 계속되었으니, 해마다 형 대눌이 망명해 있던 만주의 안동 접리수 마을을 방문하고 형을 문안하였다. 즉 1913년 7월, 1914년 4월, 1915년 4월, 1916년 7월, 1917년 4월, 1918년 4월에 형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때마다 가산을 처분하여 은밀한 지원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특히 대눌이 1914년 안동에서 군자금 모집 관련혐의로 한인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일제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던 사건 역시 그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혐의는 소눌에게도 뻔혀오다 1919년 이후에는 결국 안동 접리수 마을을 방문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해에는 3.1운동과 파리장서운동 등으로 소눌이 헌병대에 잡혀 고초를 겪는 일이 겹쳤기 때문이다. 1919년, 1920년, 1921년에는 대신 아들과 손자를 시켜 문안을 시키게 되었다.

귀국 후 소늬는 밀양군 단장면 무릉리에 정착하여 후학들을 가르치고 저술활동에 종사하였다. 밀양에 紫巖書堂 泗淵書堂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강학활동 외에 소늬는 밀양지역의 교육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23년 2월 25일 밀양군의 육영재에서 밀양 교육기성회 발기회가 개최되었다. 밀양교육회는 유림 등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밀양교육회는 예정대로 1923년 3월 11일의 창립총회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이때 노상직은 박상일, 신기균 등으로 이루어진 10인 고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밀양교육회는 조선교육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던 교육진흥운동에 호응하였다. 나아가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민립대학기성회 밀양지부를 주도했다. 밀양교육회는 밀양지역 교육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만주에서 돌아 온 소늬는 저술 활동 및 강학 활동에 종사하는 한편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저술 및 강학 활동은 일제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표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면으로는 반일운동단체와 연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기의 대표적인 반일운동단체인 광복회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광복회는 민족의 암흑기인 191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였다. 광복회 총사령은 박상진이였다. 본관이 밀양인 그는 울산에서 태어났지만 경주 녹동으로 이거하여 성장하였다. 그는 일찍이 저명한 의병장 출신 許薦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평양법원에 발령되었으나 사퇴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2년 박상진은 대구에 商德泰商會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연락 본부로 삼았다. 계속하여 1915년 대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한 후 같은 해 풍기광복단과 통합하여 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였다.

광복회는 충청도·전라도·경기도·황해도·평안도와 만주 각지에 조직을 가지는 1910년대 국내 최대의 독립군 단체로 성장하였다. 그는 곳곳에 곡물상을 설립해 연락 거점으로 삼아, 일제 타도를 추진하는 행동 강령으로 비밀·폭동·암살·명령을 시달하였다. 박상진 등의 광복회는 이념에 있어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화주의를, 방략에 있어서는 무장혁명노선을 표방하였다. 박상진은 1916년 만주에서 무기와 화약류를 들여오다가 잡혀 6월간의 징역형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17년 이후 경북 칠곡의 친일 부호 장승원, 충청남도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 등을 처단하여 친일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소늬는 광복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여기에는 소늬가 박상진과의 학맥과 인맥 등 여러

가지 인연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남 유림은 학맥 및 혼맥 등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상진이 소늬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자암계첩』에 수록된 소늬의 제자 가운데 박상진의 집안 사람들로 보이는 경주 출신들이 다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늬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배제할 수 없다. 박상진의 동생이 소늬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사돈 간이기도 하였다. 이런 관계로 소늬는 광복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상직은 광복회의 앞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뒤에서 원로 고문으로서 정신적인 지지와 물질적인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늬와 박상진의 밀접했던 관계는 1921년 박상진이 대구에서 처형된 후 소늬가 둘째 아들 가용과 함께 박상진의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러주었던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소늬의 광복회 지원 활동은 밀양 출신이 주도한 의열단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의열단은 1919년 11월 중국 길림성에서 김대지, 황상규, 김원봉, 윤세주 등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조직된 항일 무력독립운동 단체이다. 밀양 출신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한 의열단에 소늬가 연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로 의열단에 대한 군자금 지원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소늬의 손자 재화는 김원봉과 절친한 사이였다. 소늬의 증손자 을현은 의열단의 자금책으로 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늬 집안의 자금이 의열단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소늬는 전민족적인 반일운동이었던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소늬가 파리장서운동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서명에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소늬의 독립운동에서도 가장 잘 알려졌으며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밀양은 조선조 절의파의 대학자이며 영남 사림의 선구자였던 점필재 김종직을 배출한 고장이다. 밀양은 유교적 절의 정신의 전통이 뿌리 깊은 곳이었다. 특히 김종직의 절의 정신은 면면이 계승되어 국난의 시기에는 밀양 유림들이 구국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일찍이 밀양에는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유림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밀양 유림사회의 중심에 소늬가 있었던 것이다.

밀양 유림은 적극적으로 3.1운동의 대열에 동참했다. 밀양에서의 3.1운동은 3월 13일에 시작되었고, 3월 14일에는 밀양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해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밀양 유림은 3월 15일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했다. 구한말 이후 육영재, 연계소, 예림재 등에서 모임을 갖던 밀양 유림은 1910년 이후 유림구락부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결속을 다졌다. 유림구락부에서는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3월 15일을 만세시위운동을 위한 거사일로 잡았다. 3월 15일 밀양천변에는 수많은 유생들이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밀양 시내로 시위 행

진을 하였다. 이에 거리의 사람들이 호응하여 시위군중은 순식간에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한다. 소놀이 만세시위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는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60대 중후반이 되었을 그는 시위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유림의 시위운동을 뒤에서 정신적으로 후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밀양 유림은 만세시위운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른바 유림단이 파리평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유림단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남의 거유 면우 곽종석은 1919년 3.1운동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지도자들의 연합에 의해 진행되고 유교가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유림들도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종석은 호서 유림 김복한과 협력하여 유림단 명의로 파리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그 요지는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광무황제의 시해와 한국 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면서 한국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유생 백 수십 명이 서명한 파리장서는 김창숙이 중국 상해로 갖고 가서 김규식으로 하여금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토록 했다. 파리장서는 국내의 각 향교에도 우송되었다.

곽종석, 김복한 등이 주축이 되어 독자적으로 전개하던 독립청원운동은 3월 하순에 이르면 유진태 등의 중재에 따라 하나의 유림단으로 통합되었다. 이 활동을 주도한 김창숙은 유림단을 ‘기미유림단’이라고 부른 바 있다. 기미유림단은 137명의 파리장서 서명자가 활동의 주축이 되었다. 기미유림단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곽종석, 김복한, 고석진, 유필영, 이만규, 장석영, 노상직, 안병찬, 김동진, 김건영, 권상익, 임한주 등이었다.

독립청원서에 서명한 유림은 총 137명이었다. 공통점으로는 서명자들이 대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학자들이었다. 서명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맥은 파리장서의 주도인물이었던 곽종석 학맥으로 22명의 서명자를 배출하였다. 노상직 학맥은 곽종석 학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명의 서명자를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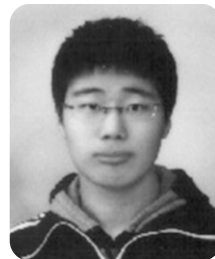
유림단의 독립운동은 경북 성주의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12일 서명자의 한사람이 체포되면서 발각되었다. 소놀은 파리장서 서명 이후 밀양 영남루 옆에 있던 현병대에 구금되었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그는 병보석으로 출감하였다.

만주에서 돌아온 소놀은 타계할 때까지 광복회, 파리장서운동, 의열단 등의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한편 역대 명유의 문집을 간행하거나 제자를 양성하는 강학활동을 이어갔다. 1913년 5월 『大訥手卷』의 발문을 지었으며, 1914년 자암서당을 건립하고 강학을 재개하였다. 이익

의 문집을 위시하여 안정복, 황덕길, 허전 등 제현의 문집과 『李子粹語』, 『東賢學則』 등 원고 상태로 보존되어 오던 서적 간행사업에 힘썼다. 1919년 독립만세시위운동 때 파리장서운동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으나 강학과 저술 간행사업은 지속되었다. 1919년 9월 노곡에서 조금 떨어진 말방으로 옮겨 泗南書庄에서 강학하였다. 1926년 자암서당을 다시 중수하고 강학에 힘쓰던 중 1931년 1월 22일 생을 마감하였다. 소놀은 생전에 많은 제자를 두어 『紫巖契帖』에는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제자는 총 80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후 2년이 지난 1933년 제자들에 의해 그의 문집이 간행되었다.

요컨대, 소놀 노상직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경남 밀양지역의 대표적인 유림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밀양의 대표적인 유림으로서 제자 14인과 함께 1919년 3.1운동 직후 파리장서운동의 서명자로 참여하여 일제의 한국통치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렸다. 나아가 1910년대 이후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적극적인 반일무장투쟁을 벌였던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후원하였다. 아울러 밀양 출신이 조직한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였던 의열단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밀양지역 독립운동의 숨은 공로자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신을 헌법으로 살리신 이종찬 선생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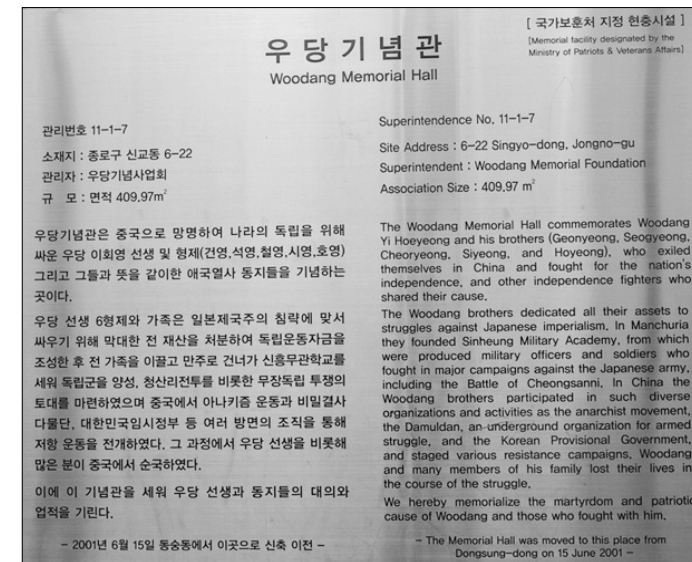


배 석 준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 우당기념관 정문 2015년 11월 5일

민주정의당 4선 의원이자, 정무 제1장관, 그리고 초대 국정원장을 역임하신 이종찬 선생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떨리고 한편으로는 설레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종찬 선생님에 대해 알아두어야 되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그리고 동아일보에 기고하시는 회고록을 토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추진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당기념관까지 찾아가기까지 경북구역 3번 출구에서 10분 가량 걸어가 보니 하얀 건물에 아담한 크기의 우당기념관이 보였다.



▲ 우당기념관 설명문

우당기념관 정문에 조그맣게 우당기념관에 대한 설명문을 볼 수 있었다.

우당기념관 앞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인 것은 우당이회영 선생님의 흉상이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우당선생님 관련 기사들과 6형제 그림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이회영 선생님께서 받으신 훈

장과 독립운동가분들의 액자사진 그리고 이회영 선생께서 당시 활동하실 때 쓰셨던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옆에 액자들에는 김구 선생님 사진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 우당이회영선생 흉상



▲ 결의를 다지는 우당 6형제



▲ 우당기념관 내부 모습 우측에 독립운동가분들 액자가 걸려 있다.



▲ 허정과도정부 당시 받은 훈장



▲ 위 상단에 “지배 없는 세상 꿈꾼 무정부주의 운동 선구”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



▲ 우당기념관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우당의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매년 3개월 마다 역사교실을 열고 있다.

우당기념관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는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으며 11시를 끝으로 대략 1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면담하기 전에 자료를 이종찬 선생님께 드리고 진행하였다.



▲ 이종찬 선생님 집무실



▲ 청주대 총장이던 이정규 선생



▲ 이을규 선생

이정규 선생과 이을규 선생은 형제지간으로, 독립운동을 함께 하셨다.

배석준 : 첫 번째 질문으로 많은 청년들이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서 3.1운동과 광복절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역사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만 ‘2.28국채보상운동’, ‘2.28독립선언’, ‘4.13임시정부수립’에 대해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임시정부기념관 추진 준비 위원장으로 계시는 만큼 임시정부의 중요성과 임시정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중찬 : 임시정부 역사에 대해 국무총리도 잘 모르더군요. 11월 3일에 국무총리 발표 내용을 보니까 헌법 전문에 대해서 정작 법관(검사) 출신임에도 모릅니다. 1919년 독립선언으로 세워진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총리가 민주공화제를 모른다는 것은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배석준 :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번년도 4월 9일자로 한겨레 신문에 올린 기고문을 읽어봤습니다. 4년 뒤인 2019년 임정건립 100주년이 되고, 그래서 임정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제에 얼룩진 역사를 되찾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7일에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민간 차원 예를 들면, 청년들이 노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중찬 : 1919년 2019년이면 100주년이 되는데 이를 위해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임정 정신은 막연한 게 아니라 민주공화제 정신인 임시정부의 정신 즉 오늘날 임시정부의 정신이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총체적인 긍정적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정기념관을 세워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고 합쳐서 공화제를 수립했으니, 청년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배석준 : 아, 그리고 선생님께서 9차 개헌을 통해 “3.1 운동을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당시 고려대 총장이셨던 김준엽 총장님과의 노력 끝에 헌법 전문에 넣으셨습니다. 이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통이라 하면, “법의 계통이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승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오던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건국절로 개칭하려고 법안을 발의해 오고 있으며, 야당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MB정부 당시에 건국 60년이라는 책자를 냈는데, 책 전문 내용에 “1948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대한민국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배하는 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중찬 :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헌법 전문에 넣은 것인데, 건국절을 만든다는 것은 헌법 전문에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건국절을 만든다는 것은 북한의 경우 건국절을 1948년 9월 9일로 보고 있고, 임시정부의 정신을 부정하므로 북한에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1926년에 김일성 주도 하 항일투쟁사를 바탕으로 북한이 만들어졌다고 봄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절을 추진하게 되면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석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에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좌편향이 되어 있으면, 박정

희 대통령에 대한 사진은 1장이고, 김일성사진은 3장이므로 이를 하루빨리 국정교과서로 돌려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찬 : 민주공화제가 성립이 되고, 그 정신으로 국가가 발전했으므로 이승만, 박정희 그 후의 긍정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망라하고, 유신이라든지 전두환 정권 때의 권위주의라든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이 스탈린과 논의하면서 남침을 획책한다는 사진이 있으면, 이것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논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검토를 하고 사진을 기록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데 단지 사진의 매수로만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뉴라이트식 작성으로는 국정화든 검인정이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기술하면 안 됩니다.

배석준 : 요즘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단어 바로 “애국”입니다. 공무원 면접을 볼 때에도 애국가를 4절까지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옹호론을 펼쳐야 애국이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애국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종찬 : 애국 관련해서, 특히 입사시험에 국정화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애국가를 강요하고, 자격을 요하는 것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애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안보적, 역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익사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사관 정체성 즉, 자위적인 입장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외래에 침탈당하지 말고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애국이라고 봅니다.

배석준 : 올해로 광복 7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96주년입니다. 하지만 임정 96주년에 관련해서 기념물이나,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정작 중국 상해, 항주, 중경 등에는 임정 기

념관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찬 : 정부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다행히 임정기념관 희망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국회에 임정기념관 예산을 청구했고, 이것은 정부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차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장인 박원순시장의 공감도 얻었습니다.

배석준 : 반민족행위자의 역사가 청산되지 못한 2015년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보훈 현실이 뉴스를 접해보니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찬 : 반민특위로 청산이 제대로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으나 독일의 나치범죄의 경우 시효가 없습니다. 나치 전범을 처벌한다고 해서 소급입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승은 후작과 그 당시 돈 16만원(1600억 정도)을 받았는데, 이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재심을 법무부가 청구했는데 접수만료 3일전에 통과를 시켜서 재산 몰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일파라고 굳이 말하지 말고 드골장군은 그들을 “한줌밖에 안 되는 사회적 쓰레기”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친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당시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회적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반민족행위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배석준 : 4월 13일 민주공화제 채택한 임시정부수립일을 공휴일로 채택하면 더 좋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종찬 : 광복회에서 건의를 하기는 했으나 정부에서 검토한 흔적이 없습니다. 몇 천 년 동안 왕정국가이었다가 1919년 공화제를 한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예로 민주화가 됐지만 왕정으로 복귀한 스페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당당하다고 봅니다.

배석준 : 최근 교육부의 “대다수 교과서 내에 유관순 열사 기술 누락”을 이유로 허위광고

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찬 : 교과서에서 역사에 대해 발전적으로 서술했다고 생각해야지, 한 부분만 보고 서술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배석준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광복군을 군대의 시초로 볼 수 없고, 국방경비대를 시초로 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적 관점과, 군사학적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찬 : 대한제국 군대가 해체되는 날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강만길교수가 저한테 말하기를 대한제국 군대 총 숫자가 8천명이었고, 군대 해체 소식을 듣고 항일의병투쟁으로 의병이 14만 명이 일어났는데, 의병이 일본에 동대문에서 왕산 허위장군이 싸웠으나 졌습니다. 그래서 의병이 쫓겨서 만주에서 독립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 중장 출신이고, 1940년에 광복군을 만들었고, 이게 광복 후 국군에 편입된 겁니다. 국군은 자위적인 정신으로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므로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2월 8일을 건군 기준으로 보지만 북한의 경우 1946년 조선인민군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1978년에 북한이 역사를 고쳐서 조선인민군은 1932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빨치산투쟁으로 창설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11년 신홍무관학교가 세워졌고, 김일성이 태어나기 전에 항일투쟁을 했으므로, 우리나라의 군 역사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오니즘(Zionism)을 통해 역사를 조립했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알면 잃어버린 것도 찾고, 역사를 모르면 가지고 있던 것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배석준 : 제가 들은 바로는 안중근 선생님 문헌 터가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찬 : 아닙니다. 발견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더 발전시켜

야 합니다. 물론 그 분의 유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을 죽인 것도 큰 공적이지만, 동양평화론에 입각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경우 동양평화론을 얘기한 안중근 선생님의 정신을 살려 정부가 요구한 기념비 설립이 아니라 기념관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침략 받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맞서 싸운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배석준 : 장관고시가 확정이 된 가운데, 국정교과서가 편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찬 : “백성의 마음을 못 사는 책은 100번 나와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된다면, 제대로 편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병철 개인의 업적보다는 삼성그룹의 유능한 인재와 노동자들의 희생감수가 있었기에 그리고 박정희 개인의 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인재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문맹퇴치 등의 잘한 점도 언급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모두 다 기록해야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가 됩니다.

배석준 : 요즘 교과서를 보면 김구 선생님 외에는 다른 분들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찬 : 김구선생님의 경우 임정 당시 주석을 지냈을 뿐 임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정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모두의 업적입니다.

배석준 : 약산 김원봉선생님의 경우도 영화 암살에서만 그나마 언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찬 :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언급 안 되어 있는 이유가 해방 후 북한에서 장관급 자리를 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분을 끌어안고 가야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김일성사관을 위축시키고 민족사를 더 두껍게 바라볼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석준 : 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찬 :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환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환수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받았지만, 후손은 그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났다면 환수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석준 : 제헌 헌법 만들 당시에 의원내각제로 하려던 것은 대통령제로 바꾸었는데 다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찬 : 대통령제로 급하게 바꾸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대통령제는 국무총리가 없는 대신 부통령제가 있고, 검찰총장이 없고 법무부장관이 통솔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성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 보다는 대통령제를 6년 단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4년 중임제로 하다보면 4년 중 1년은 국내 흐름 파악, 그리고 2~3년은 정책 추진, 나머지 4년째는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남발하게 될 것이고, 흐지부지 하다가 레임덕이 올 수 있습니다.

배석준 : 청년 세대들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구선생님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찬 :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국제정치나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하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6.25전쟁 당시에서도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석준 : 선생님께서 김준엽 총장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다.”는 문구를 넣으셨는데, 개헌논의가 있을 당시에 반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찬 : 당시 헌법개정위원장이 반대를 하길래,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있는 현경대의원에게 말을 했더니 이 문구를 넣는 것에 찬성을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종찬 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면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종찬 선생님을 처음으로 마주한 그 순간 “말로만 듣던 역사의 산 증인이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되살려야 한다. 즉,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이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에 있었던 민족의 한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자 왕정국가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알린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 즉, 황제의 나라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기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백성이 근본이 되는 즉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겠다.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못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조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 이종찬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



김삼웅
전독립기념관장

사대적인 왕조사와 자주적인 민중사

조선왕조는 건국 국시(國是)에서부터 외세지향의 사대주의가 강했으나 백성들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난이 닥칠 때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병과 싸웠다. 1894년 진봉준 장군의 동학혁명에 삼남지역의 농민들이 봉기하자 고종과 대신들은 청국군을 불러 진압시키고, 텐진조약에 따라 청국군에 이어 일본군이 들어와 동학군 20~30만 명을 학살했다.

한말 일제가 침략하자 국왕과 대신들은 적에게 굴복하거나 매국노가 되어 을사늑약과 병탄조약을 체결하였다. 500년 사직의 왕조가 전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국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민중들은 의병, 의열 투쟁, 독립군, 광복군이 되고,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일제와 싸웠다.

망국의 군주 고종과 순종의 집권기에 조선의 군왕과 중신들의 인식과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최근 국내에 소개된 중국의 사상가 량치차오(梁啟超)의『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에 소개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합병조약은 8월 16일(1910년 - 필자)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이완용의 논의 단계를 거쳤고, 17일 데라우치가 그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보로 통지했다. 18일 일본정부는 임시 내각회의를 열었고, 22일에는 임시추밀원 회의를 열어 25일 공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갑자기 그달 한국 황제(순종) 즉위 만 4주년 기념회를 열어 축하한 뒤 발표하기를 청하자, 일본인들이 허락했다. 이날 대연회에 신하들이 몰려들어 평상시처럼 즐겼으며, 일본 통감 역시 외국 사신의 예에 따라 그 사이에서 축하하고 기뻐했다. 세계 각국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망국을 앞두고 생일잔치 벌이는.

2천만 민족, 3천리 강토, 4천년 역사가 왜적에게 짓밟히는 참담한 상황에서, 망국 군주의 즉위 기념일 잔치를 벌이는 군주와 중신들의 행위를 량치차오는 ‘달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순간 백성은 왜적의 종살이가 시작되고 강토는 유린되었다.

4천년 사직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유리질식할 때 백성의 고향을 뺏았던 조선왕족·매국노·귀족 76명(4명은 거부 또는 반환)에게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안겨주고, 전국 유림 721명(3명은 거부)에게 30만 엔의 거금이 내렸다.

조선왕조 500년의 국교인 주자학의 핵심은 충효(忠孝) 사상이었다. 인조반정(쿠데타) 이래 집권한 노론계열이 300여 년간 집권하면서 저지른 매국·망국의 도배들이었다. 이들은 망국 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친일파가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군정 -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고, 오늘에까지 기득세력의 뿌리가 되었다.

이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외세에 빌붙어 축재한 물적기반으로 자제들을 해외에 유학시켜서 신지식을 배우게 하고, 정계·언론사와 대학, 고위관료·법조인으로 키우고, 학연·혈연·지연을 중흥으로 엮어가면서 영원한 ‘양지족(陽地族)’이 되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위정척사파의 거두 의암 유인석 선생은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다. 국내 의병전쟁이 어렵게 되자 67세의 나이도 잊은 채 러시아 지역으로 의병전선을 이동하면서 ‘처변삼사(處變三事)’, 선비들이 선택할 세 가지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처변삼사

1. 거의소청(舉義掃清) : 의병을 일으켜 역당을 쓸어낼 것.
2. 거지수구(去之守舊) : 은둔하여 지조를 지킬 것.
3. 치명수지(致命遂志) : 목숨을 끊어 뜻을 이룰 것.

약간의 덧붙임이 필요하다면 1,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매국적을 척살할 것. 2,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하면 외세에 협력하지 말고 민족적인 자존을 지킬 것. 3, 망국노의 비루한 삶을 살지 말고 깨끗하게 순절하라는 지침이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폄하의 대상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일’, ‘건국절’로 내세우면서, 27년 동안 일제와 피나는 전쟁을 치루고,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반헌법적, 반역사적 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정권이 임시정부를 폄하한다고 하여 임정의 존재와 역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집권세력이나 그 추종자들에게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는 거추장스러울지 모른다. 그것보다 철도를 놓고 신작로를 닦아준 침략세력과 여기 빌붙어 내선일체·동조동근을 부르짖었던 자들에게서 ‘실용주의’와 ‘선진화’의 모델을 찾을지 모른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물역사적인 가치관이다.

한민족은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권회복운동을 벌였다. 3·1혁명은 바로 그 절정이었다. 2천만 민족의 10분의 1이 만세시위에 나설만큼 거족적이었다. 임시정부는 3·1혁명의 산물이다. 3·1혁명 뒤에 국내외에서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한결같이 정체는 군주제의 부활이 아니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국호와 국체문제를 논의할 때에 국호는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대한제국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한다는 의미를 살려야 하고,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권재민’의 세계사적 조류에 맞춘 것이었다.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혁신적인 의미로 민국을 칭호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여운형 등 몇 사람이 대한은 망한 국호, 일본에 병탄된 국호이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국체문제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왕정복고나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다수의 뜻

에 따라 민주공화제로 수용되었다.

임정의 ‘민주공화제’ 채택은 혁명적

대한민국임시헌장(헌법)은 조소앙이 기초하여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심의를 거쳐 채택된 전문과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일제 병탄 9년 만에 국체와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하고, 구대한제국의 복구가 아니라 혁명적 새나라의 건국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일제와 싸우는 전시체제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제2조)이라고 규정하여 권력분립체제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실제로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 국정의 최고정책결정 기관이 되었다.

헌법은 남녀귀천·빈부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을 명기하고 (제3조), 신교·언론·거주이전·신체·소유의 자유 (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제5조), 교육·납세·병역의무 (제6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과 국제연맹가입 (제7조), 구황실 우대 (제8조), 생명형·신체형·공창제 폐지 (제9조) 등을 설치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하여, 광복 뒤에는 지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비록 10개 조항에 불과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지만 근대 민주공화제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다. 1919년 봄 이역에 모인 망명 지사들은 이렇게 민주적인 신념으로 우리나라의 국체의 근간을 공화제로 만들었다.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구황실의 예우문제와 같은 봉건적인 잔재가 없지는 않았으나, 헌법을 민주공화제로 만들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절충식을 채택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의 제1차개헌, 1925년의 제2차개헌, 1929년 제3차개헌, 1940년의 제4차개헌, 1944년의 제5차개헌 등 전후 다섯차례에 걸친 개헌과정에서 민주공화주의의 기본을 유지하였다. 임시정부가 채택한 공화제의 자유주의 이념은 8·15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이어졌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의정원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 씩을 개선케 하면서 새로운 충원을 통해 민의를 받아들이고 법통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임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승만대통령이 월슨 미국 대통

령에게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에 둘 것을 청원한 사실과, 이동휘 국무총리가 임시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소련 레닌에게 독립운동 원조를 교섭하고 측근이 받아온 자금을 측근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임시정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1927년 3차개헌에서 집단지도 체제인 국무위원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제의 1인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꾼 것은 이승만과 이동휘가 축출되고 지도부의 공백 상태에서 다수의 참여를 통해 화합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고뇌의 산물이었다.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약헌(헌법)을 공포하면서〈정강〉도 함께 공포하였다.

정강(政綱)

1. 민족평등 · 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함.
5. 절대 독립을 서도(誓圖)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함.

임시정부는 건국강령 제1장 총강에서 7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민족 공동체로서 최고 조직인 한국 ②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토지제도의 국유화규정 ④주권 상실 당시의 순국선열들의 유지 ⑤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로서의 임시정부 ⑥1931년에 선언한 삼균제도의 발양확대 ⑦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정치의 동시 실현을 다짐하였다.

‘삼균주의’ 건국기본이념 삼아

임시정부는 일제의 패색이 점차 짙어지는 1941년 11월 조국광복과 건국에 대비하여 제4차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이 때에 삼균주의 사상을 개정헌법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임시정

부의 국무위원으로 독립운동 진영의 탁월한 이론가인 조소앙은 독립운동 내부의 좌우익사상을 지양 종합하여 독립운동의 기본방략과 광복된 조국건설의 강령으로 삼기 위하여 삼균주의를 창안하였다.

조소앙은 손문의 삼민주의, 강유위의 대동사상, 아나키즘, 사회주의이념 등 여러 사상을 배경이론으로 하여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간에 균등생활을 실시하려는 조국건설의 민족주의적 정치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제시하였다.

1918년 정부부터 싹트기 시작한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은 ‘완전균등’을 본질로 한다. 개인간의 균등은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보통선거제 · 국유제 · 국비의무교육제를 실행하여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이루자는 뜻이었다.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하여 이룩되는데, 이를 모든 민족에 적용하여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 · 피통치의 지위에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전쟁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 침탈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로써 완전평등의 국제생활이 이루어지며, 더 발전하면 사해일가(四海一家) · 세계일원(世界一元)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고 내다보았다.

임시정부는 삼균주의 이념을 4차 개헌 과정에서 폭넓게 받아들이고 건국강령에서는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과 독립 · 자주 · 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피압박 식민지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임시정부처럼 민족혁명과 세계평화사상을 이론화 · 체계화하고 헌법과 건국강령으로 제시한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임시정부의 ‘국비의무교육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정치 · 경제적인 균등한 생활을 도모하는 방안은 대단히 선구적인 내용이고 정책이었다. 해방 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주체가 되고 삼균주의 사상이 강령이 되었다면 한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평등’을 이념으로 삼는 공산주의 신봉세력이 설 땅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새나라 건설의 당면정책

임시정부는 1945년 9월 3일 해방 뒤 김구 주석 명의로「국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란 성명을 통해 14가지 당면정책을 발표, 임시정부와 “동포 제위의 당면노선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현대문으로 정리)

1. 임시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입국할 것.
2. 민족해방과 독립운동을 위해 혈전한 중·미 소·영 등 우방과 제휴하고 연합국헌장에 의해 세계일가의 안전 및 평화실현에 협조.
3. 연합국 중 주요 국가인 중·미 소·영·불 5강과 먼저 우호협정 체결.
4. 맹군(동맹군) 주재기간 내에 일체 필요한 사안을 적극 협력.
5. 평화회의 및 각종 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발언권 행사.
6. 국외 임무의 약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가 서로 접촉됨에 필요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 국적 보통선거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 내외 각 계층·혁명당파·종교집단·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 영수회담을 소집.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 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하고, 본정부의 일체 직 능 및 소유물건은 과도정권에 인계.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 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의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정부가 부 채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
11. 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한 일체 벌범(罰犯)을 사면할 것.
12. 적산을 몰수하고 적교(敵橋)를 처리하되 맹군과 협상하여 진행할 것.
13. 적군에게 피박 출전한 한적군인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맹군과 협상하여 진행할 것.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노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임시정부는 새로 수립되는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3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외국 군정이나 분단정부, 자본독재나 공산독재를 배격하였다. 친일파·매국노를 공개적으로 엄중 처단할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체미 중이던 이승만은 특별기를 통해 급히 귀국시키고,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은 11월 23일 그것도 개인자격으로, 두 차례

나누어 귀국케 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가 일제와 싸우면서 구상했던 새나라 건설의 꿈과 이상은 좌절되고 말았다.

미국의 임정 배제가 현대사의 비극

한민족의 정통을 이어받은 임시정부가 해방 후 기능을 발휘했다면, 해방공간의 이념투쟁도, 분단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김구 주석을 비롯 임정요인들을 배제하고 친미노선의 이승만을 온갖 특혜를 주어 조기에 귀국시켰다. 자신들의 지침에 순종할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이승만은 귀국에 앞서 미국무차관 에치슨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였다.

나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지역이 현재 미군에 의해 통제되는 군정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군정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동지역에서의 체류기간 중 본인의 모든 활동이 동 기관의 법령과 규칙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승만은 맥아더가 보낸 전용기에, 미군대령 복장을 입혀 일찍 귀국시키고 김구와 임정 요인들은 일제 패망 3개월 후 개인자격으로 귀국시켰다.

그러나 국민은 임시정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거행된 임시정부 영수 환영식에서 조선음악가협회가 제정한「임시정부 환영가」를 부르며 환영했다.(원문그대로임)

임시정부 환영가

1.

원수를 물리치고
맹군이 왔건만은
우리의 오직 한 길
아직도 멀었던가
국토가 쪼개 나고

정당이 서로 분분
통일업신 독립업다
통일만세 통일만세.

2.

30년 혁명투사
유일의 임시정부
그들이 돌아오니
인민이 마지하여
인제는 바른 길을
돌리자 자주독립
독립업신 해방 업다
통일만세 통일만세.

임시정부는 일부 물역사적인 부류의 편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적·법적 모태이며, 임시정부가 꿈꾸고 설계했던 정책 중에는 지금도 우리가 채택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침략으로 9년 동안 단절되었던 국맥을 잇고 정통성을 가진 망명정부로서 종래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여 민족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임시정부는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 사회주의·아나키즘세력까지를 포괄하여 민족 전체를 대표하였다. 연통제 실시, 광복군 창군, 대일·대독선전포고 등 조국광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27년 동안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유일하다. 

파스키에 프랑스 대사의 숨겨진 한불외교 미담



주 섭 일
언론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프랑스혁명기념’ 리셉션에서 제롬 파스키에 주한프랑스대사가 이임소식을 전했다. 최근 30여년의 한불외교에서 그가 진정한 ‘한국의 친구’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외국사절중 프랑스대사를 먼저 접견한 것은 “한국의 벗”이기 때문일 것이다.

1987년 문정관으로 처음 온 이래, 그는 한불우호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외규장각문서 반환, 김영삼 대통령 명예철학박사,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모로아 전 총리의 참석, 파리9구의 임정사무실 금속판 제막식 등 한국을 위한 까다로운 업무를 잘 해결해준 외교미담의 주인공이다.

외규장각 반환 등 한불외교관계 정상화의 숨은 공로자

1993년 외규장각문서 반환문제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반대로 지연되었다. 프랑스외무성은 도서관사서들에게 반환을 설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인이 프랑스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안 돌려주나?”는 질문을 인사처럼 했다. 1993년9월 서울의 YS-미테랑 정상회담에서 등가교환-영구임대방식에 합의했으나,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었었다.

1993년 12월부터 김정남 교문수석과 김도현문체부차관이 조속한 반환요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외교부의 공식라인으로 해결하라”고 거절했다. “외교관들의 복지부동 때문이라며 도와 달라!”는 간청이었다. 파스키에 당시 아주국부국장을 만나 조속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도서관사서들이 한국이 보낸 교환도서 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리스트에 중국동전을 넣어 사서들의 격분을 샀다는 것이다. 파스키에 국장은 외무성 담당책임자로 한불간 외교정상화를 위해” 충력을 다했다. 그러나 한불관계는 반환전까지 18년간 외규장각 갈등으로 표류했다.

한불관계의 긴장이 장기화하자 자크 랑 전문화부장관, 파리7대학과 13대학교총장 등이 반환찬성발언으로 여론을 움직였다. 특히 2005년 반기문 외무장관(현재 유엔사무총장)이 필자를 포함한 외무부자문회의를 구성, 이 문제를 토의했다. 등가교환 조건을 파기하라고 건의, 이 족쇄를 풀자 2011년 사르코지 대통령의 반환결정으로 한불관계는 정상화되었다. 파스키에는 외교부총국장 등 고위직으로 프랑스외교부에서 문서반환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한국대사관의 거부운동에도 소르본 명박 YS에게 수여

1995년 봄, 김정남 교문수석과 김도현 문체부차관이 파리방문예정인 YS의 소르본대 명예박사의 주선을 요청했다. 나는 대사관을 통해 처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대사관, 국제교류재단까지 교섭했음에도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외교부장관 비서실장 파스키에를 다시 만나 가능성을 타진했다. 3일 후 “가

능하다”는 답이 왔다. 김 수석과 김 차관은 “무조건 추진”을 요구했다. 1960년대 초반 4.19 주역인 필자와 6.3 운동권의 서울문리대 선후배 관계의 인연으로 나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떠맡았다.

김교문 수석-김도현차관의 YS의 소르본 대 명예철학박사 프로젝트는 가동되었다. 1주일 후, 파리8대학교총장이 전체총장회의 협의결과 수여결정을 내렸다. 즉각 낭보를 전하면서 “앞으로는 외무부 공식채널로 매듭지어라”고 잘랐다. 그러나 김 차관이 “YS가 소르본 철학박사를 소망하니 바꾸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닌가. “외교부로 넘기라”고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다시 파스키에에게 소르본 박사를 부탁을 했고, 수일 후 ‘확정’이라는 희소식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며칠 후 심각한 항의를 했다. “프랑스정부가 발송한 학위수여통보를 한국정부가 접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한불 간 외교스캔들이 폭발직전이었다.

교문수석과 문체부차관에게 긴급전화를 넣어 “프랑스정부의 학위수여통보를 외교부가 거부했다. 즉각 접수조치하고 프랑스정부에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얼마 후 김 수석의 접수통보를 받아 파스키에에게 전달, ‘위기’를 넘겼다. 수석과 차관이 YS집무실에 뛰어 들어가 대통령의 최종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계속 거부작전을 폈다.

청와대경호실의 현장답사에서 한국대사관이 다시 박사학위거부를 본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대학주변의 건물구조가 경호에 부적당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대사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YS의 명예를 지켜주었다.

교문수석과 문체부차관, 그리고 파스키에의 노력으로 YS는 소르본 대 명예철학박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파스키에가 아니었다면 박사학위수여가 무산되고 외교스캔들의 폭발은 불가피했다. 대사관과 외교부가 왜 대통령의 박사학위수여 거부운동을 폈는지, 누구의 지시인지 오늘도 의문이다.

YS는 소르본의 박사가 된 후 거부음모의 선봉 장선집 주불대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1만여 달러를 하사했다’고 하니 한불외교의 ‘희극’이다.

‘1919-1920 임정독립운동 파리사무소’ 금속판 제막식

2006년 6월 주철기 주불한국대사는(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수교 120주년 행사를 위한 외교를 펼쳤다. 당시 나는 임정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임정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과 상해의 프랑스조계 경찰문서에서 임정독립운동 문서 발굴 작업을 故박병선 여사와 하고 있었다. ‘일하는 프랑스대사’로 교민사회의 호평을 받은 주철기 대사는 외교부가 한불수교120주년 예산을 삭감했다며 난감해 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의 파리평화회의 때 김규식 박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파리에서 ‘조선독립청원서’를 평화회의의장 클레망소 프랑스총리와 윌슨 미국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독립운동을 1년 2개월간 펼친 항일운동의 무대가 파리였다. 주 대사는 그때의 임정사무실에 금속판을 달자고 파리에 교섭했으나, 들라노에 시장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파스키에 외무성총국장을 만나 금속판 부착을 요청했다. “1919-1920,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무실이 파리에 있었다”고 기록한 금속판을 달면 한불수교 120주년 행사를 빛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런던에 임정이 있었다” 파스키에의 화답이다.

그가 난제를 풀어주었다. 그는 파리9구 샤토당로 138번지 아파트대문에 금속판을 부착하게 외교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2006년 10월 파리9구 시장, 프랑스외무성 아주국장 등과 주철기 대사, 대한민국 임정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필자와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판 개막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 임정의 항일독립운동을 증언하는 기념물이 파리한복판에 생긴 것이다. 광복 70주년인 오늘, 항일독립운동의 의미와 정통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표상이 되고 있다. 파스키에 대사는 2016 한불수교 130주년기념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9월 초 파리로 귀임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Bon voyage!”



의친왕 망명을 이끈 대동단의 “박정선”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붉은 담장 안 맴돌던 고추잠자리

빙 빙 돌다 어디로 가나

철창에 갇힌 이 몸 날고 싶어라

오천년 사직을 되찾기 위해

천릿길 상해로 떠나는 황순

가는 걸음마다 놓인 돌부리

어찌할거나 어찌할거나

조선의 영원한 독립을 완성하자
세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하자
사회의 자유 발전을 널리 실행하자고
대동단 동무들과 목청껏 외친 삶
결코 헛되지 않아
광복의 꽃으로 활짝 피었네.

박정선 (朴貞善, 1874 ~ 모름)

“대동단을 조직하여 조선독립 실현을 목적으로 김가진을 총재로 일본과 혈전할 것을 선언하는 문서를 인쇄하고 구 보부상을 규합, 이를 배포하게 하여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등 치안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이는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47살의 박정선 애국지사에게 내린 판결문이다. 죄명은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사기” 등 무려 5가지다. 대동단은 비밀결사조직으로 대동신보(大同新報)를 발행, 배포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조직을 중국 상해로 옮기고, 의친왕(義親王) 이강(李綱)의 상해 망명을 추진하다 일제에 발각되었다. 이후 대동단은 제2차 독립선언 계획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3.1만세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일제의 야만성을 꾸짖고 한국 독립을 외쳤다. 대동단원으로 박정선 애국지사는 1919년 11월 28일 서울 안국동 광장 등지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던 중 왜정에 잡혀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을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전 5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 『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 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외 다수.



영화 <소수의견>, 멈춰진 현실의 시간



이 두 희
자유기고가

김성제 감독의 극영화 <소수의견>(2015)은 도시 재개발지구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를 소재로 만든 법정 영화이다. 사건의 발단은 재개발에 반대하여 농성 중인 주민들에 대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시작한다. 진압 과정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잃고, 그 아버지 역시 순직한 경찰에 대한 살인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 하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느 기자와 우연히 변호를 담당하게 된 한 국선변호사는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의 법정으로 이끌고 간다. 영화는 재판과정에 비중을 두고 심리와 변론의 공방, 그리고 최종판결까지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그 못지않게 법정 바깥에 있는 언론과 사법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보여 주고 있다.

영화 <소수의견>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영화의 사건은 관객들로 하여금 2009년 당시 용산 재개발지구에서 있었던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용산 4구역 남일빌딩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명의 철거민과 경



찰 인력이 희생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의 심각성과 함께 계속되는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결국 철거민들은 2010년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끝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치사에 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이 후 2년이 지나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두개의 문>(2012)은 당시 재판 과정의 녹취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며 다시 한 번 용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에게 이를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시 2015년 유사한 사건을 소재로 하는 동명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소수의견>이 개봉한 것이다. 적어도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 감독과 배우들이 영화를 어디까지나 한편의 영화로서 관객들이 봐주기를 원하였다. 비록 영화와 원작소설이 용산 사건으로부터 동기를 얻어왔다 하더라도 영화는 그 자체로 별개의 창작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화 개봉 후 영화에 대한 기사 및 온라인상에서의 관람후기 등 관객들의 반응은 용산 사건에 대한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이 영화가 뒤늦게나마 용산 사건의 진실과 함께 부당한 권력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보는 입장과, 영화가 당시의 철거민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여론을 선동한다는 입장이 다시 부딪히는 것이다. 결국 소위 진영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갈등의 사이에 놓여져, 정작 영화는 작품성에 대한 평가나 흥행성적 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영화 <소수의견>을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과 비교하는 것은, 단지 용산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공통점 때문이기 보다는, 두 영화 모두 법정이라는 논쟁적 공간을 영화의 전면

식의 차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개의 문>은 실제 공판 당시에는 신청이 기각된 참여재판 속으로 관객들을 불러오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제한된 증거들과 증인 심문 녹취록 등을 재구성하여 마치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하듯 관객들을 몰입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두개의 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해보지만, 동시에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스스로 촬영하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한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 형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영화는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었지만 어떤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이나 음모를 밝혀내지는 못한다. 영화로서는 이미 현실에서 내려진 판결을 반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다큐멘터리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반면 <소수의견>은 용산 사건을 하나의 모티브로 가지더라도 어디까지나 허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적이고 고유하지만 때로는 전형적인 설정 속에서 전개되는 극영화이다. 결국 영화 속 허구적 세계의 진실성이란 그 세계관 안에서 그럴듯함의 척도인 픽션성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현실과 가지는 관계가 아무리 긴밀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많은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현실에는 없었던 참여 재판이라는 설정이나 검찰의 조작을 밝혀낼 증거 등이 영화 <소수의견>에는 있었고, 무엇보다 사건 현장의 진실에 대해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정확히 보여줄 수 있었다. 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극영화로서 누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영화에서도 현실에서 영화 속으로 가해지는 어떤 인력을 발견할 수는 있었다. 아마도 극의 흐름대로라면 영화의 마지막 판결에서 아버지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도 모



▲ 영화 <소수의견> 중에서



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2010년 현실의 용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그러한 결말이 우리에게는 더 그럴듯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영화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용산 사건으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더라도, 영화 <소수의견>이 말하는 이야기의 가치가 아직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과 정의의 문제는 여전히 때때로 서로 다른 답을 가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무한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사법 체계 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만약 과거의 용산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났을 때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배심원이 된 국민들은 어떤 평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화 <소수의견>은 허구적인 실험을 해보았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단순히 현실을 반복하거나 불복하려는 시도로서 보다는 내일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견>의 개봉 후 다시 갈라진 여론을 볼 때 상황은 과거와 역시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용산 사건에 대한 입장의 대립에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동일한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갈등을 한편으로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논의의 발전 없이는 시간이 흘러 갈수록 우리는 그러한 모순조차 점점 더 식상하게 여기고 결국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면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관객들은 외면은 우리 자신의 사회적 망각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현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현실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어느 한쪽의 편으로만 기능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지나친 현실주의는 때로 당면한 갈등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서로를 소진시키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더욱 맹목적이 될수록 우리는 더 근시안적인 관점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현실들이 시간에 압도되어 잊혀 질 때마다 우리는 쓸쓸한 패배의 기억들만 가지게 될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때로는 현실과 역사에 대한 입장의 유보와 다양한 접근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이라는 가정에 대해 불안함이나 불온함을 느끼지 않는 여유와 상호에 대한 신뢰일 것이다. 결국 모순된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더 큰 상상력과 서로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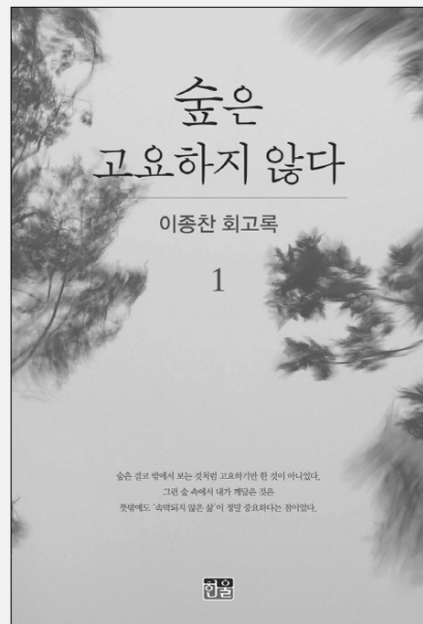
▲ 영화 <소수의견> 중에서



숲은 고요하지 않다 (총 2권)

- 이종찬 회고록

• 지은이 | 이종찬 • 출판사 | 한울 • 쪽수 | 476쪽



**이종찬의 80년,
그 속에서 돌아본 대한민국 80년
역사가 된 시간들에 관한 현장의 기록**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후손으로 상하이에서 태어나 한국 정치 1번지 종로·중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오랫동안 꿈꾸었던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어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종찬이 걸어온 80년의 삶과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한국 정치의 민낯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했다.

그가 인생의 거친 숲에서 직접 마주한 사건들은 오늘날 한국 정치사를 기록하는 데 하나하나 크고 작은 꼭지를 이루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는 일평생 습관처럼 기록하고 수집한 방대한 자

료를 바탕으로 그 숲의 풍경화를 꼼꼼하게 완성해간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여러 기록에서 생략된 채, 또는 잘못 그려진 채 비어 있던 많은 장면이 그의 손을 통해 이 책에서 생생하게 복원된다.

**상하이 독립운동가의 집에서 한국 정치의 중심부까지
좌절과 절망 위에 도전과 희망으로 그려낸 풍경**

“나 자신의 삶 역시 숲 속의 그것이었다. 나를 가리켜 자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남보다 먼저 군문에 들어가 힘 가진 사람들 옆에서 혹은 권력기관에서 승승장구해 정치적 기반을 쌓고, 나아가 서울의 정치 중심지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한 숲에는 그렇게 순탄한 길만 있지 않았다. 민족 해방과 더불어 고국으로 귀환해서 우리 가족이 꾸린 삶은 지극히 가난했고, 분단 이후로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가문에 불온의 딱지가 붙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그 뒤 군문과 중앙정보부에서, 또 민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내가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곡절과 심연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숲은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숲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뜻밖에도 ‘속박되지 않은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달리 말하면, 진정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위한 부단한 싸움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고 선택해가는 과정, 그것이 내가 거쳐 간 길이었다. 나는 늘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 ‘책머리에’ 중에서

이종찬의 80년 삶은 대한민국의 시간과 고스란히 함께했다. 그는 1936년 독립운동가들의 망명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상지인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우당 이회영 선생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10대 소년 시절 광복과 함께 환국해 학창 시절을 보내는 동안 그는 어려서부터 존경했던 백범의 갑작스러운 죽음, 곧이어 닥친 한국전쟁의 비극,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몰락 등 정국의 극심한 혼란을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인생의 길을 가다듬게 된다. 이때 그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그의 조부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길을 따라 참여와 행동으로 나라의 진운에 함께할 방도를 모색하면서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군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일찍이 ‘정보’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이종찬은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역사의 격변기에 국가 정보기관에 복무하면서 수많은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각종 간첩단 사건과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락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보부의 선거 공작과 7·4 남북공동성명, 10월유신과 윤필용 사건, 10·26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이종찬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위기관리, 사회 각 분야의 운영과 소통, 대립되는 입장의 조율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익명의 삶’을 살았다. 그는 세대를 앞서 그렇게 익명으로 살았던 우당 선생의 정신과 삶이 자신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역사의 계승’에 무거운 책무감을 가졌다.

이종찬은 1980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자 이를 적극 활용해 이 시대와 나라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에 나섰다. 제11대부터 제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줄곧



서울 종로·중구 또는 종로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민의의 엄중한 요구를 행동의 토대로 삼았다. ‘51% 의회주의자’였던 그는 여당 내에서 누구보다도 국민 앞에 겸허했으며, 국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야당과의 대화에서 찾았다. 이 시절 그는 자신이 속한 민주정의당을 ‘민족의 정당’,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그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결국 1990년 무원직한 3당 합당과 1992년 변칙적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이종찬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10여 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한국 정치의 미래와 자신의 행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모색기를 보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쓰라린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간 걸어온 길을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돌아보며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 모색은 귀중한 결실을 낳았다. 이종찬은 역사의 요청에 따라 1995년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했고, 마침내 1998년 ‘국민의 정부’ 탄생으로 자신이 주장해온 ‘수평적 정권 교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돌아와 이 기관의 개혁에 중요한 토대를 놓았다.

이종찬은 20년에 걸친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끄러움 없는 삶이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긴 스펙트럼의 삶을 마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겸손한 자평을 넘어 ‘자유인’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로서 그가 걸어온 경이로운 행로를 만나게 된다. 그 행로는 결코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며 우리 사회 시민의 상식과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었으며, 이종찬 개인의 꿈을 모두 실현한 것은 아니었으며 한 인간이 의지와 성찰과 결단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감당해야 했던 분투 과정의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종찬의 삶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숲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종찬의 삶을 돌아보는 사적인 기록인 동시에, 그가 큰 기대를 안고 또 때로는 그만큼 큰 좌절을 맞보며 몸소 부딪혀온 대한민국 정치를 낱알이 고하는 공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그의 조부 이회영이 그러했듯 이종찬은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은 삶을 살고자 진력을 다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가 살아온 시간과 공간은 그를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았고, 그의 삶 역시 동시대의 대한민국 역사만큼이나 부침을 거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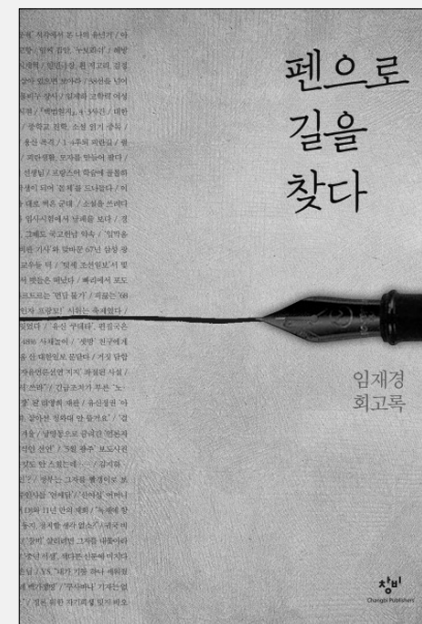
이제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그가 살아온 시간들의 연장선상에 놓인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데 작은 밑거름으로 쓰인다면, 이 책은 역할을 다한 것이다.



펜으로 길을 찾다

- 임재경 회고록

• 지은이 | 임재경 • 출판사 | 창비 • 쪽수 | 440쪽



한평생 흔들림 없이 참된 언론을 꿈꿨던
원로 언론인 임재경의 삶과 철학

『펜으로 길을 찾다』는 험난한 시대에 참된 언론을 꿈꾸며 한평생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온 저널리스트 임재경의 회고록이자 자서전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8·15해방, 6·25전쟁, 4·19혁명 등을 겪으며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지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고 펜으로 길을 찾은 이후에는 지사적(志士的)인 기자로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언론민주화운동을 실천해온 과정이 생동감있게 기록되었다. 이 책은 저자의 삶과 내면적인 세계가 진솔하게 드러난 자서전이자 회고록인 동시에, 굴곡진 우리 현대사와 언론운동사의 역동적인 증언

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또한 정치권력과 자본에 휘둘리기 십상인 언론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저자의 경험으로 보여주는 저항과 언론자유 정신은 비단 언론 현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귀중한 시사를 안겨줄 것이다.

데까당 문청으로 성장하다

『펜으로 길을 찾다』 1부는 1944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입사 시험을 치르던 1961년 무렵까지의 삶을 변화무쌍한 사회상과 연결해 그려냈다.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김화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따스한 기억들을 돌아보며 가족사에 얹힌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거기서 맞은 8·15해방과 곧이어 진주한 소련군의 모습이 포착되고,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착수되고 남녀평등권법령이 공포될 무렵인 1947년 38선을 넘어와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이 소상히 기록되었다. 월남민 가족의 서울 살이가 어떠했는지도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남대문 시장에서 물비누 장사로 가족을 건사하는 부모의 힘겨운 어깨 너머 왁자지껄한 시장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와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6·25 때 인민군과 국군이 번갈아가며 점령한 서울의 거리 모습과 미 공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용산 일대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참혹한 광경도 전해준다. 전쟁 와중에 ‘인민보’라는 신문을 팔아 우무국수를 사먹고 소설책을 사본 경험담을 자랑삼아 들려주기도 한다. 또한 피란지 군산에서의 고교생활, 북녘에 두고 온 이복누이들에게 건네는 연민어린 손길, 소설가를 꿈꾸며 국내외 문학작품을 섭렵하던 ‘데까당 문청’의 하루하루, 친구와 함께 목격한 4·19 시위와 경찰의 진압 등에 대한 이야기도 놓칠 수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 입사 시험에서 ‘사군자(四君子)’를 몰라 낭패를 보고도 합격한 일화 등이 재미를 더해준다.

1부는 저자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며 당대의 생활상과 사회상이 세밀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있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를 거치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에 밀착된 세대의 자화상이자 기록문으로서의 읽을거리가 많다.

언론민주화에 투신하다

2부에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1960년대 중후반 경제부 기자 시절부터 1990년대 한겨레신문 부사장 시절까지 언론 현장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했다.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시절에 쓴 ‘삼성 비판 기사’가 ‘삼성 광고’로 대체된 연유를 20여년 뒤에 우연히 알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조선일보 선배 기자인 리영희와 남재희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 사연도 들려주는데 저자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체질, 앞서가는 시대감각, 그리고 뛰어난 필력이 둘의 공통점이다. 그들이 영어를 잘했다는 것이 매력이라면 매력이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겠다.”(279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해방 후 조선일보의 가장 빛나는 시기는 편집국장 김경환, 정치부장 남재희, 외신부장 리영희가 신문을 만들던 때’라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1년간의 빠리 유학 중에 일어난 ‘메트로 오페라역에 큰대자로 드러누운 사건’의 배경도 재미있다. 또한 한국일보 경제전문 논설위원 시절 언론민주화운동에 뛰어들고 1980년 ‘김대중 과도내각’에 연루



되어 해직과 투옥으로 이어진 과정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한겨레신문 창간과 경영 과정에 얹힌 비화 등이 소개된다.

특히 2부에서는 저자가 그려놓은 다양한 인물군상을 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대학 친구 및 선후배, 문인, 언론계 동료 및 선후배, 정관계 인사 등 많은 인물들과 교유하며 엮어내는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84년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연구센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임 동지, 정치해볼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어와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털어놓고, 저자와 ‘절친’이었던 ‘호협’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이 해직기자 여러 명에게 집을 사준 미담도 들려준다.

2부는 유신독재와 국부독재 하에서 겪은 언론탄압의 역사, 뒤이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저자가 앞장선 언론자유 운동의 활동과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로 풍성하다. 한국 현대 언론의 산 증인인 저자의 기록을 통해 우리 언론의 역사를 고스란히 꿰뚫어볼 수 있다.

후배 기자들에게 보내는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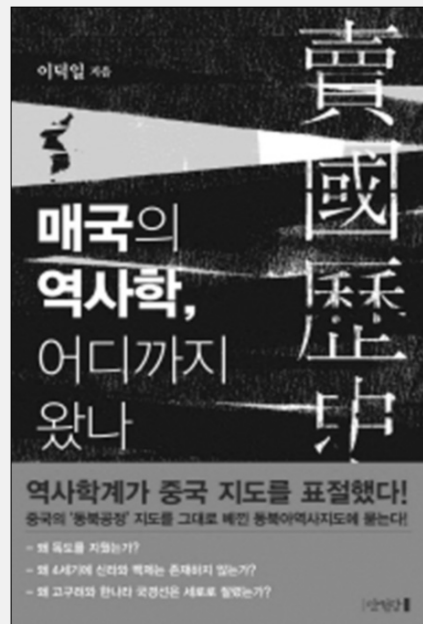
언론탄압에 맞서고 언론자유를 꿈꾸던 저자가 선배기자로서 후배기자들에게 들려주는 조언도 있다. 첫째, 직업윤리와 취재 스타일에 관한 조언이다. “기자의 생명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 인습적이고 판에 박은 기성의 판단 기준을 묵수하는 순간 기자의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신조어 ‘기레기’가 가리키는 대로다. 기자의 직업윤리를 지키는 길이 말처럼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버리는 용기로부터 비롯한다. (...) 남해의 진도 팽목항에 갔던 연인원 수천수만의 기자들 가운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잔영(水中殘影)’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는 기자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250~51면) 둘째, 기자의 자세와 정신에 관한 조언이다. 영달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거나 자신을 봉급생활자로 설정하고 안주하는 자세야말로 경계해야 할 일이며, 지사적인 정신을 견지하여 자기희생과 인욕(忍辱)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 임재경과 같은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들의 기록이 대개 그러하듯이 『펜으로 길을 찾다』는 그대로 한국 현대사의 역정과 궤를 같이한다. 거기에 더해 언론자유를 꿈꿨던 청년 임재경의 삶은 그대로 한국 현대 언론사와 겹친다. 이 회고록은 현대사의 기록이자, 현대 언론운동사의 보고로 읽히기에 손색이 없다.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 지은이 | 이덕일 • 출판사 | 만권당 • 쪽수 | 392쪽



역사학계가 중국 지도를 표절했다!

‘동북공정’ 지도를 통째로 베긴
동북아역사지도에 묻는다!

- 왜 독도를 지웠는가?
- 왜 4세기에 신라와 백제는 존재하지 않는가?
- 왜 고구려와 한나라 국경선은 세로로 잘렸는가?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은 주로 한국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다. 민족사의 뿌리부터 왜곡시키기 위해서다. 먼저 조선총독부는 한국사를 반도사半島史로 축소시켜 놓았다. 한국사의 본무대였던 대륙과 해양을 삭제하고 반도사로 가두어

둠으로써 한국인들 스스로 자국사를 반도사로 좁게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의 식민통치기구인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일본의 식민통치기구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동북아역사지도』는 조선총독부의 이런 관점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그나마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런 지도를 그릴 수도 없었던 편찬위원회는 동북공정의 관점이 고스란히 담긴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을 그대로 베꼈다. 게다가 독도를 제외시켜서 일본 극우파의 침략사관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 세금 47억여 원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역사지도』의 현주소다.”

- 본문 75~76쪽에서

세금 먹는 하마, 식민사학자들의 매국 행위를 통렬하게 고발한다!

한 장의 지도가 국민들 앞에 펼쳐졌다. 동북아역사지도. 중국의 동북공정(현재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과 일본의 독도 도발 등 주변국의 동북아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47억여 원의 세금을 쏟아 붓고 60여 명의 학자들이 8년여에 걸쳐 작업한 역사지도 프로젝트 결과물 일부가 국민 앞에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 어째 수상하다. 고구려와 한나라 국경선이 세로로 무 자르듯 똑 잘려 있다. ‘실수’로 독도가 증발했다. 4세기를 나타낸 지도에 신라와 백제가 쏙 빠져 있다.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도들의 놀라운 비밀을 폭로한다. 제작 과정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단히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지도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국회 동북아특위 속기록을 공개하며 동북아역사지도가 “중국 동북공정을 추종하고, 일본 극우파의 침략사관을 그대로 따르는 지도”임을 현장감 있게 조목조목 짚어간다.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반도 북부가 중국사의 강역이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위나라 조조가 경기도 일대까지 점령했다고 그려놓았으며, 일제 식민사학이 발명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따라 4세기까지도 한반도 남부에는 백제도 신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지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에, 분노했기에,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우리 역사학계의 현주소를 고발한 것이다.

누가 우리의 역사를 팔아먹는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지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13년까지 이 지도의 제작을 담당했던 사람은 ‘실제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가 아주 허술하고, 간도 영유권 주장이 허술하다’고 주장하던 이였다. 이런 사람이 만든 『동북아역사지도』에서 독도는 어떻게 표기되고 있을까? 당연히 지워져 있다. 실수로 빼먹기에 독도는 한일 간에 너무나도 첨예한 땅 아니었던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땅 아니었던가?

단군을 신화의 영역으로 보내버리는 등 고조선사 죽이기에 앞장서온 교수, 독도와 간도 영유권 주장 논리와 자료가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 동북아역사지도를 만든 실무자들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동북아역사지도가 그런 꼴로 나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들, 식민사학자들은 ‘실수’ 따위 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지도를 만든 것이다. 자신들이 하늘 같이 떠받들어온 조선사편수회발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치밀하게 입각한 지도를 만든 것이다. 한민족사의 시간과 공간, 사람들을 축소, 편횡하여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선총독부 사관에 해방 70년이 지난 오늘도 식민사학자들은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 영토를 팔아먹는가?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는 이처럼 지도 속에 배어 있는 식민사학의 관점들을 하나 하나 지적한다. 고조선과 한사군, 위만조선, 임나일본부, 그리고 독도 문제까지를 1차 사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총괄적으로 짚어감으로써 논란만 있고 논쟁이 없는 우리 역사학계에 다시 한 번 큰 경종을 울린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역사지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는 제대로 된 역사,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여름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역사 고발서가 되어줄 것이다.



역사의 절망을 넘어 -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꽃자리 • 쪽수 | 400쪽



이 절망의 역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광복 70주년이다. 해방 70주년이기도 하고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지난 70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압축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문화·5공시대로 역류하고,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과점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독부 이승만’의 반민족, 반민주적 행적은 외면하고 그를 ‘국부’로 모시자고 난리다. 이 책은 역사의 교훈을 새겨 건전한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작은 염원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그토록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광복한 외적과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지휘권의 무기한 연기에서 보듯이, 자주도 이루지 못했고, 외세가 갈라놓은 분단도 해소하지 못한 채, 그렇다고 ‘민주공화’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옛 사가들이 역사를 ‘감계(鑑戒)’라 한 것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읽는 분들이 이 글들을 통해 지난 70년의 간고한 역사와 아픈 사력(史歷)을, 광복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고, 더불어 사는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이 책이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겠다.



역사는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갈지(之)자 행보를 하거나 계(蟹) 걸음을 걷거나 때론 반동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통령 선거부정, 22조를 날린 4대강 파괴, 50~100조에 이른다는 자원외교 비리, 남북대결,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해킹·감청, 간첩조작, 정당해산, 전교조·민변·민노총 등의 탄압,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처, 남북대결 구도, 총체적인 민주공화정의 역류 등 겹치는 실정 앞에 흡스름이 진단한 ‘절망’을 체감하게 된다.

광복 70년 동안 하고 많은 변란, 사태, 사변, 사건 중에 70가지를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각에 따라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방 후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된 반민족행위자 처벌’로 인식하는 데 반해 ‘스탈린의 지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이 따르기도 한다.

민주헌정을 짓밟은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치켜세우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학생,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진 반독재 투쟁을 ‘죽음의 배후’ 운운하는 물지각한 식자들도 존재한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파주기’로 매도하고, 수백 억 방산비리를 ‘생계형’으로 호도한다.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5,580원인데, 어떤 고위층은 16개월에 17억 원, 한 달에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전관비리’를 해도 승승장구 출세하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해방 70년 역사의 주류를 형성할 만큼, 2010년대 한국사회는 민주공화주의와 사회정의가 실종되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은 극에 이르고, 사회적 비판기능과 자정능력은 갈수록 취약해진다. 이 절망의 역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제83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



지난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효창원에서 제83주기 이봉창 열사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2월 13일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나흘 뒤 김구 단장의 전송을 받으며 일본인으로 위장해 도쿄로 향했다. 그는 일왕 히로히토가 이듬해 1월8일 요요기(代代木) 연병장에서 열리는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 당일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폭살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봉창 의사의 거사는 당시 침체기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활동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는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성재 이동휘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국무총리 취임96주년 기념식



성재 이동휘 선생은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한국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이다. 대한제국기 육군 장교 출신으로 한말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이끌었고 함경도, 평안도, 북간도, 연해주 한인사회 등 활동하면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독실한 전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반일민족독립을 최우선에 놓고, 이 숙원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소련 정부와 제휴한 민족주의적 혁명운동가였던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사임한 이후, 시베리아에서 순국하였다.

손양원 기념관 개관



지난 10월 20일 산돌 손양원 목사 생가 터에서 손양원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다.

손양원 선생은 1915년 칠원보통학교 재학 중 궁성요배를 거절하여 퇴학을 당했으나, 선교사 맥레이(Macrae, L.)의 항의로 복교되었다.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아버지가 마산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부산 나병원교회, 울산 방어진교회·남창교회 및 양산의 원동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였고, 동양선교회에서 일하던 중 초량교회의 목사 주기철(朱基徹)과 친교를 맺기도 하였다.

193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여수의 나병원 자 요양원인 애양원(愛養院)의 교회에서 봉사하였으며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1940년 체포되어, 광복이 되어서야 출옥하였다.

그 뒤 애양원교회에서 다시 일하다가 1946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공산분자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계엄군에 의하여 살해자가 체포되어 처형되려는 순간에 구명운동을 전개하여 안재선이라는 살해범을 살려내고 양아들로 삼았으나 곧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군에 체포되어 미평에서 그들의 총탄을 맞고 순교하였다.

제9회 임종국상 시상식 (수상 : 뉴스타파)

11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9회 임종국상 시상식이 열렸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임종국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뉴스타파는 2012년 권력 감시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목표로 창립한 독립언론이다.

뉴스타파는 해방 70년 특집으로 ‘친일과 망각’ ‘누가 애국지사를 욕보이는가’ ‘김무성 부 김용주, 일제 군용기 헌납, 징병 독려 광고’ 등을 방영해 친일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10회 임창순상 시상식 및 제6회 청명문화포럼 (수상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청명문화재단(이사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은 ‘제10회 임창순 상’ 시상식과 ‘제6회 청명 문화포럼’을 10월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올해 임창순 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이다. 이 상을 주관하는 청명문화재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의 활동이 민족공동체의 민주적·평화적 발전에 공헌한 사회실천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학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겠다는 임창순 상의 취지에 부합해 2015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시상금은 2천만원이다.

임창순 상은 한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역사가·서예가로 후진 양성과 더불어 금석문, 서예,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과 통일사회운동을 한 청명 임창순 선생(1914~99)의 유지를 기리는 상이다.

한편, 한국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방향 등을 모색하는 청명 평화포럼은 ‘해방 70년, 걸어 온 길, 가보지 못한 길,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대담은 유초하 충북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와 서해성 작가,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 독립 정신과 애국 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창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11월 13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의 기념사와 광복회 박유철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제2부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경과보고 및 의결안건으로는 제11차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제12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신임임원 승인 및 임원변동의 건, 기타 안건으로 이루어졌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계승성을 재조명한 이 날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

‘경성, 일제유산답사(남촌편)’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청년독립군 공동 주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청년독립군이 공동주최한 <경성, 일제유산답사 - 남촌편>이 12월 5일 진행됐다.

이번 답사는 남산 주변 일제 흔적과 권위주의 정권 시기 중앙정보부 자리를 둘러보는 시간이었다.

답사는 「한양도성 걸어서 한바퀴」의 저자 유영호 선생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가한 십여 명의 청년독립군 회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했으며,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지역 일제 유산과 독립운동의 흔적을 짚어보는 이 답사는 이후에도 두 달 간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및 학술회의



11월 23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은 “사업회가 2004년 창립된 뒤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이

임정기념관 건립이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우리 역사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남북통일의 길에도 하나의 이정표로 설정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한시준 단국대 교수(주제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 박결순 충북대 교수(주제 : 중국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과 그 현황), 김희곤 안동대 교수(주제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기능과 역할)가 발표를 했다. 종합 토론에는 한상도 건국대 교수,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함께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학술회의를 계기로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과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부지와 예산 확보, 전시 자료 준비, 연구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복 70주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70주년 기념 전시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개최



12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70주년 기념 전시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개막식이 열렸다.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과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회장의 축사로 개막을 알렸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12월 1일부터 9일 까지 예정이었으나, 12월 3일 새벽 예상치 못한 기상 문제로 전시물이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행사가 종료되었다.

1919년 3.1독립운동을 통해 나타난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이 소멸된 지 9년 만에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국’을 표방한 민주공화국으로, 이를 계승하여 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2015년도 ‘임정 송년의 밤’ 행사



12월 11일 18시 2015년도 임정 ‘송년의 밤’ 행사가 경희궁 뷔페에서 열렸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는 임원 및 회원, 답사단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즐기며, 회원 간의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5년 9월, 10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창중	20,000	20,000
곽태원		5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 철	10,000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노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배석준	5,000	5,000	이학효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해원	30,000		이항중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해준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률근	10,000	10,000	서동희	5,000		이화순	30,000	3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봉수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빛나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삼웅	20,000	20,000	석혜진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김선군	10,000	10,000	신경숙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홍범	10,000	10,000	장채령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심재권	30,000	3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안재웅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영일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염기남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염승훈	10,000	10,000	정지완		5,000
김윤수	30,000	30,000	오상균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윤영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오정섭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정록	70,000	7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유덕곤	10,000	10,000	조영록	50,000	
김종규	10,000	10,000	유상수	10,000	10,000	조영빈	5,000	5,000
김종배	20,000	20,000	유은숙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종성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중숙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종준	10,000	10,000	조회환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진한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건웅	10,000	1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계환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동진		2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두엽		50,000	최영진	10,000	10,000
남만우	30,000	50,000	이두희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범중	100,000	100,000	최희주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한익석	10,000	1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상훈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영국	10,000	10,000	홍순권	10,000	1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영숙	10,000	10,000	홍용희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황용만	5,000	5,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황인자	30,000	3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정재	5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창복	20,000				

2015년 9월, 10월 특별회비

회원명	9월	10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 입 회 원 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⑮

송학선과 서대문형무소



송학선(宋學先, 1897.2.19~1927.5.19)은 서울 천연동(天然洞)에서 출생하였다. 학선(學善)은 배움을 좋아하고 매사에 학문과 선행을 일삼으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항상 성품이 강직하였고 몸을 늘 청결히 가꾸고 생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의거 이후 보여준 대담성과 재판과정에서의 침착성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융희황제가 붕어하자 선생은 총독을 처단할 결심을 하고 창덕궁 앞에서 사이토 총독이 오기를 기다렸다. 4월 28일 오후 일본인 세 명이 탄 차 한 대가 조문을 마치고 금호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가운데 앉은 자가 사이토 총독이라 판단하여 거사를 결행하기로 하였다. 자동차가 잠시 멈춘 사이 선생은 차량 왼쪽으로 뛰어 올라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을 찔렀다. 왼쪽 앞자리에 있던 자가 급히 손을 들며 일어나 저지하니, 선생은 그 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허리를 찔러 쓰러뜨렸다. 그리고 총독이라고 생각한 자를 향해 가슴과 배를 찔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생이 사이토로 생각하고 처단한 사람은 사이토 총독과 체격과 생김새가 비슷한 일본인민회 '이사사토'였다. 거사 실행한 후 일경과의 격투 끝에 머리에 상처를 입고 붙잡히면서도 주변의 학생들에게 "만세 불러라 만세 불러!"라고 소리를 쳤다.

일경에 체포된 후 자신이 처단한 사람이 사이토 총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실망하였지만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심문을 받았다. 일제도 단순 살인행위가 아닌 총독 처단이 목적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일제는 선생을 '살인 및 상해죄'로 기소하여 예심에 넘겼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토미[里見] 검사로부터 취조를 받게 하였다. 이때 선생은 사건의 일체를 숨김없이 밝혔다.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6·10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이어졌다.

선생은 사형을 선고 받는 과정에서도 일제의 간교한 조작 행위를 꾸짖고 의거의 동기를 밝히는 의연함을 보였다. 《동아일보》기사에 의하면, 7월 23일 아침 10시쯤 선생은 고이적삼을 입고 깊은 샷갯에 쇠수갑을 찬 채 서대문형무소 미결감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공판의 날이 왔건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근심하는 기색 없이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사형을 선고 받은 선생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1926년 7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 공소하였지만 역시 사형이 언도 되었다.

1927년 5월 19일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 형장에서 경성복심법원 이하라[井原] 검사의 입회 하에 몰래 선생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다음날 일제는 가족들에게 유해를 찾아가라는 통지를 보냈고 가족들은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과 아우들이 선생의 시신을 수습하여 화장하였으며, 유골은 그 근방 산에 가매장하였다가 반년 후에 서대문 밖 봉원사에 안치하였다. 결국, 선생은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거사와 독립의지는 6·10만세운동의 한 계기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역사쿠테타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歴史 역사학습단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취지

(사)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청년독립군이 기획하는 '역사학습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려나갈 깨어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모집대상

- ✓ 독립운동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
- ✓ 역사 관련 이야기하다가 부족한 점을 느끼는 사람
- ✓ 역사관련 토론을 잘 하고 싶은 사람
- ✓ 국정화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
- ✓ 16학번 새내기들과 역사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문의 | 청년독립군 대표 010-4501-7629 / 카톡아이디 @hee7629

신청방법

<http://ha.do/UpJ> (대소문자 주의)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모집기간

12월 2일(수) ~ 12월 27일(일)

활동내용

오리엔테이션 2016년 1월 5일(화) 오후 5시(장소개별공지)

주 2회 세미나(총 6회차, 1월 5~22일)
역사관/한국근현대사/조직운영론/퍼실리테이터 과정

1박2일 워크숍(1월 23일(토)~24일(일))
*위 일정에 전체 참가하셔야 합니다.

특전

(사)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청년모임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수여

** 모든 일정 참가 시에만 부여

주최단체 | 청년독립군, (사)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